CHANGWON PUBLIC LIBRARY

2020년 (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 사 업 명: 경남독서한마당
- 운영 기간: 2020년 1월 ~ 12월
- 운영 대상: 경남도민
- 운영 내용: 독서공모전 및 독서진흥행사 (수상작품 전시, 책 꾸러미 대출)
-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협 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목차

/ 심 사 평 ---------- 04

/ 수상작품 ---------- 07

◗ 북에세이
- 초 등 부 ---------- 08
- 청소년부 ---------- 34
- 일 반 부 ---------- 45

◗ 북디자인
- 초 등 부 ---------- 50
- 청소년부 ---------- 63

◗ 북트레일러
- 초 등 부 ---------- 68
- 청소년부 ---------- 71

/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 74

/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 77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5년~2019년) ---------- 78

북에세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작품 편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심사 전에 작품 수준에 대한 걱정이 들었지만 예상외로 좋은 작품도 많아서 심사가 즐거웠다.

초등 저학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저학년들의 독후감이지만 어린이들의 생각에 깊이가 있어 심사를 하는 동안 흐뭇했다.

『뭔가 특별한 아저씨』를 읽고 자신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며 글을 재밌게 전개한 거제 양정초 현수아 어린이가 쓴 작품을 심사위원들은 대상으로 선정했다.

초등 고학년

응모작 수준의 편차가 컸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확한 표현을 한 좋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았다. 이해력, 표현력, 구성력, 완성도 면에서 그랬다. 초등학교에서 문학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속에서도 〈어린 만세꾼〉을 읽고 독후감을 쓴 남해 상주초등학교 박민경 어린이는 책에 대한 이해력이 좋고 느낀 점을 마무리까지 잘 이끌고 나가 심사위원들에게 고른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

청소년부에서는 사회적 적응에 관심을 둔 작품들이 많아 고무적이었다. 심사 기준은 내용의 이해도와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1차적 심사를 한 뒤 최종심에 오른 김민서의 〈동물농장〉과 공경빈의 〈체리새우-비밀 글입니다〉를 두고 구성력과 완성도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로 하였다.

두 작품 다 뛰어난 작품이었는데, 어른스러운 표현보다는 청소년다운 진솔함에 심사위원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상은 소집단인 학급에서 다수에 적응해가는 독서자의 용기를 잘 이끌어 간 점에 믿음이 갔다. 밝은 내일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일반

일반부는 〈믿음과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의 시간〉을 쓴 이지영 님에게 수상의 영예를 드린다. 작가 심윤경의 『설이』를 읽고 쓴 글인데 보육원에 버려진 '설이'가 '곽은태 소아과' 원장님과의 인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의 이야기다. 끝으로 주인공 '설이'와 '시현'이가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미래를 향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표현에 심사위원들의 마음은 움직였다. 입상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북디자인

올해 심사는 심사하기 전부터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시작이 되었다. 한 해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야할 시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어떠한 작품이 얼마나 출품되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귀엽고 작은 손으로 어떻게 연필과 붓을 잡고 그렸는지 상상되지 않는 초등학생 저학년의 아기자기 순수한 작품부터 심사자로서 나의 실력을 최대치로 만든 청소년들의 세련된 터치 그리고 같은 책을 읽어본 입장에서 너무나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들에 어려운 사회 상황도 우리 아이들의 창작 열정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같은 공고문과 책들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형식들이 가득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의 다양하고 기발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세대적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심사위원에게는 아주 신선한 시각적 경험과 동시에 하나 하나 아름다운 작품들을 심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책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정성스럽게 화면을 구성하고, 적절한 재료로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특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제각각 자유로운 해석과 표현방법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정말 표현력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 작품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과 의도로 당시에 표현하고 있었을까 상상하며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공감하면서 심사하는 것이 속세에 물들고 의식적인 생활을 반복하면서 현실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한 잔의 신선한 샘물을 건네주는 느낌이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의미있는 기회를 준 운영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부탁까지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해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북트레일러

"우리 같이 북튜버할래요?"라고 만나 묻고 싶었다.

북트레일러 심사를 하는 도중에 든 생각이다. 작품의 편차가 있으나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당장 북튜버 콘텐츠로 손색이 없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읽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읽고 안 읽는 사람들은 너무 안 읽는다. 오래 전에 읽은 고사가 생각났다. 형설지공. 눈빛과 반딧불을 잡아 모아 만든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눈빛 반딧불빛을 모으는 수고를 하느라 차윤은 지쳐버렸고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 도래했다.

전자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종이책 시장은 크게 위축될 거라고 걱정했다. 전자책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났으니, 책을 영상으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북튜버의 등장이다.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 이젠 정말 책을 안 읽겠구나라고 걱정할 즈음 반전이 일어났다. 북튜버의 책 소개 영상을 보고 종이책을 구입해 읽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대면하지 않고 댓글로 책 읽은 소감을 나눈다. 북튜버, 북트레일러는 종이책의 종말이 아니라 독서의 출발이고 매개체다.

경남독서한마당 도서를 대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을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다. 그들은 스스로 종이책을 온전히 이해하고 친구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자극을 주었다. 우수작들 중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으뜸이 된 작품은 학생다운 창의성이 보이고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전자책도 좋고 영상도 좋고 좋은 영화 한 편도 좋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북트레일러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북에세이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010 **뭔가 특별한 마음** – 「뭔가 특별한 아저씨」를 읽고
거제양정초등학교 3학년 현 수 아

012 **소심한 어린 만세꾼** – 「어린 만세꾼」을 읽고
상주초등학교 6학년 박 민 경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01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 「천하무적 용기맨」을 읽고
신안초등학교 3학년 이 승 우

014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른 펭귄들** – 「밀어내라」를 읽고
석산초등학교 1학년 김 채 은

015 **내 곁에 있는 천하무적 용기맨에게** – 「천하무적 용기맨」을 읽고
월포초등학교 1학년 박 솔 지

016 **뭔가 특별한 아저씨** - 「뭔가 특별한 아저씨」를 읽고
수정초등학교 3학년 김 하 윤

017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힙합 독수리」를 읽고
용덕초등학교 3학년 박 예 권

018 **강아지 시험** – 「강아지 시험」을 읽고
반송초등학교 3학년 박 희 요

019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서**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아림초등학교 3학년 이 설

020 **뭔가 특별한 아저씨** – 「뭔가 특별한 아저씨」를 읽고
법수초등학교 3학년 강 채 원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021 **내일 또 싸우자** – 「내일 또 싸우자」를 읽고
화개초등학교 2학년 황 현 빈

022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6학년 이 하 빈

024 **외롭지만 착한 소녀 마리에게**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쌍백초등학교 5학년 노 승 연

026 **현실 세계와 유튜브 세계를 살아가는 세상** – 「유튜브 전쟁」을 읽고
동성초등학교 6학년 공 지 후

027 **오퍼튜니티, 나는 나의 길을 간다.** –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를 읽고
수동초등학교 5학년 이 진 서

028 **유튜브 전쟁** – 「유튜브 전쟁」을 읽고
문선초등학교 5학년 정 민 주

029 **동생아! 이제부터 재미있는 놀이로 싸우자!** - 「내일 또 싸우자」를 읽고
함양초등학교 4학년 김 도 희

030 **관계를 그리는 동안** –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을 읽고
죽림초등학교 6학년 김 예 란

032 **나의 다짐**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신현초등학교 5학년 나 연 수

033 **양날의 검 유튜브**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장천초등학교 5학년 최 민 아

뭔가 특별한 마음

거제양정초등학교 3학년 현 수 아

나비에게 특별한 것은 꽃이고 하늘에게 특별한 것은 구름이다. 연필에게 특별한 것은 지우개이고 바람에게 특별한 것은 나뭇가지이다. 또 나에게 가장 특별한 것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이다.

엄마는 그냥 내 엄마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나를 안아 준다. 엄마의 진짜 특별한 점은 얼굴에 있는 빨간 점이다. 내가 6살 때 엄마 눈 옆에 난 빨간 점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귓속말로 말했다. "엄마는 사실 오로라별에서 온 오로라 공주야. 너는 공주의 딸이라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어. 그건 바로 착한 마음이지."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엄마가 우주에서 온 줄 알았다.

아빠가 특별한 이유는 그냥 내 아빠기 때문이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게임도 시켜주고 나랑 놀아준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점은 아빠 옆구리에 왕 점이 있다. 만약 미래에 아빠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이 나타난다면 한방에 진짜 아빠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아빠는 특별한 점이 있어. 어디에 있을까?"

'뭔가 특별한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아빠처럼 아저씨도 어디에 특별한 점이 있거나,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표정으로 아저씨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저씨가 갖고 있는 가방에 엄청난 물건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 가방을 열면 사탕, 초콜릿, 장난감, 신상 휴대폰, 컴퓨터, 복슬복슬 강아지, 매끈매끈 도마뱀, 오물오물 햄스터, 신비의 약, 마술봉, 안마기 등이 막 쏟아지는 상상을 했다.

아저씨의 특별한 점은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저씨처럼 머리카락이 긴 남자를 본 적이 없다. 나도 만약에 아저씨를 만났으면 신기하고 특이하게 봤을 것이다. 몰래 따라가서 머리카락을 쭉 당겨 봤을지도 모른다. 나도 요즘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지만 너무 귀찮다. 왜냐면 머리를 감고 나서 드라이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밥 먹을 때 머리카락을 묶지 않으면 국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또 선풍기 바람이 잘못 날리면 눈앞이 커텐을 친 것처럼 깜깜해진다. 그래서 아저씨의 긴 머리카락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가 긴 팔을 입어서 천만다행이예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이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했다.

다정 아저씨는 사장님한테 머리카락이 길다고 혼이 났다. 나는 아저씨가 사장님한테 아픈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한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답답했다. 빨리 말했으면 덜 혼났을 텐데. 처음에 나는 사장님을 오해했다. 사장님이 약간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장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외모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사장님도 긴 머리카락으로 나타나서 반전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웃겼다.

다정 아저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아픈 아이들에게 갖고 싶은 물건을 사주는 것도 좋을 텐데 왜 하필 머리카락일까 생각했다. 아이들이 아픈 곳은 마음이었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이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당장 바를 연고가 없다.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다. 나도 예전에 앞니가 늦게 나서 속상한 적이 있다. 친구들은 어른 이가 나왔는데 나만 앞니가 없으니까 이상했다. 사진을 찍으면 나만 앞니가 분홍빛 혀색이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머리카락을 기른 것 같았다. 아저씨 마음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도 아픈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 편지를 읽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좋겠다.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소심한 어린 만세꾼

상주초등학교 6학년 박 민 경

수업 시간에 역사를 배울 때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저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린 만세꾼'이란 책을 읽으면서도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가의 말처럼 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모습이 생각났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시위대에 선두에 섰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저 책 속 아이들이었다면 절대 밀양 소년단과 오마리아처럼 선두에서 모두를 이끄는 아이들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가장 안전한 곳에 서서 작게 만세를 외치는 소심한 어린 만세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심한 어린 만세꾼을 보고 '당당히 만세를 외칠 수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용기가 없다면 아예 시위에 참여하지 마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시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소심한 어린 만세꾼이 시위의 열기에, 사람들의 외침을 얻고 용감한 어린 만세꾼으로도 자라날 수도 있는 거구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등장 인물에게 용기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학생들, 힘든 상황에도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어른들,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말이죠.

책 안에서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저는 특히나 일장기를 변소에 버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일본에게 일장기란 무척 소중한 것인데 그걸 변소에 버리고 내가 한 짓이라고 자백까지 하다니 책을 읽던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원봉과 김상득, 이 두 분은 아마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니 말이죠.

이 책의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용기'일 겁니다. 어린 만세꾼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용기가 절로 샘솟을 겁니다. 어린 만세꾼들의 행동 중 용기가 묻어 있지 않은 행동은 없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으면 해요. 특히 저 같은 소심한 어린 만세꾼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소심한 어린 만세꾼이 용감한 어린 만세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용기가 넘쳐 나는 책, '어린 만세꾼'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신안초등학교 3학년 이 승 우

'1등이 아니면 어때? 꼴등이면 어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용기맨의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육상대회 400m 선수다. 400m는 애매한 거리이다.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도 아니다. 100m처럼 전력 질주를 하자니 길고 800m처럼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기에는 짧은 거리다. 그래서 400m 경기를 뛸 때에는 페이스 조절이 어렵고 전력으로 달리는 체력이 부족해서 1등을 놓친다. 육상에서는 1등만이 결승전을 넘고 큰 축하를 받는다. 만년 3등인 나는 너무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1등을 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기맨의 말을 듣고 사실 등수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등을 했던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나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바퀴의 운동장을 돌았을 것 같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 1등 친구는 나보다 더 최선을 다했기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나는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나의 최선이 얼마의 노력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등수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만약 최선을 다한다면 400m 코스를 다 뛰고도 결과에 상관없이 내 자신이 뿌듯할 것 같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PC방에서 게임할 때 운동장을 전력으로 돌고, 친구들은 편하게 쉬는 시간에 나는 모래 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노력한 나의 매 순간이 보람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어 끝까지 하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는 말이 있다. 끝나기 전에 포기하면 아쉬움과 미련이 한가득이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뿌듯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천하무적 용기맨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맨이 되어 주변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어 모두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보람찬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른 펭귄들

석산초등학교 1학년 김 채 은

어느 날 엄마가 시킨 택배 상자를 풀어 보니 그 속에 무서운 표정을 지은 펭귄이 긴 막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밀어내라"는 제목의 책이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동화에는 어른 펭귄들이 갈 곳을 잃은 다른 동물들을 밀어냅니다. 펭귄들이 이 동물을 밀어내는 이유는 자기들과 다르게 생기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북극곰이 너무 무거워 얼음이 녹는 것 같고 물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들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절대 자기들 사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어른 펭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긴 것과 태어난 곳이 달라도 같이 살 수 있고 또 실제로 같이 지내보면 북극곰이 무거워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물개들이 많이 먹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혹시 더 먹는다면 사냥을 많이 하거나 서로 나누어 먹으면 될 텐데 펭귄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너무 못되게 느껴지고 또 쫓겨나는 동물 가족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 펭귄과는 다르게 아기 펭귄들은 사는 곳과 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노는데 이 모습을 보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착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동화 뒤에는 '어른 펭귄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다른 동물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른 펭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얼음이 갈라져서 아기 펭귄들은 멀리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기 펭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소리쳐도 다른 동물들을 쫓아내느라 듣지 못하는 엄마 아빠 펭귄들을 보니 저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른 펭귄들은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또 아기 펭귄들도 다른 곳에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꼭 아기 펭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동물들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내 곁에 있는 천하무적 용기맨에게

월포초등학교 1학년 **박 솔 지**

천하무적 용기맨을 읽고 나서 용기가 조금씩 생겼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용기가 안 생겼다. 무엇이든 틀릴 거 같아서 말 못하고 두려워서 못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천하무적 용기맨 이야기에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좀 싫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이야기는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싫은 거 솔직하게 말하기는 나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아!! 그리고 게임 종료 버튼 누르기는 상상만 해도 싫다. 만약에 내가 천하무적 용기맨이라면 용기를 나누어 주고 용기가 생길 수 있게 응원해 줄 것 같다. 주인공 아이가 태권도 심사에서 져서 우는 것도 용기인지 몰랐다.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진짜 용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용기 없어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천하무적 용기맨이 내 곁에 있어서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다. 용기맨은 어떻게 해서 용기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TO. 용기맨
용기맨 안녕?
난 월포초등학교 1학년 박솔지야
너는 왜 천하무적 용기맨이야?
그냥 용기맨으로 하면 되지.
혹시 용기가 천하무적이나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어떻게 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해.
나도 처음엔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틀릴 거 같아서. 틀리면 혼나잖아.
나는 틀리는 게 두려워.
그래서 수학 문제 풀기가 싫었는데 책을 읽고 두려움이 없어졌어.
정말 고마워. 용기맨 너가 아니였으면 수학 문제 풀 때 후덜덜덜 떨고 있을 걸 ㅋㅋ
하여튼 정말 고마워.
용기맨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줘서~♡
고마워. 용기맨 안녕~♡

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용기맨이 맨날 맨날 용기가 있기 바라는 솔지가~♡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뭔가 특별한 아저씨

수정초등학교 3학년 김 하 윤

방학을 맞아 경남독서한마당 추천 도서를 여러 권 읽었다. 그 중에서 〈뭔가 특별한 아저씨〉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읽기 전에 표지 그림만 보고 아저씨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궁금했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왜 놀라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아저씨는 머리를 날마다 바꾸었다. 긴 머리로 아이들과 수영도 하고 눈사람도 꾸몄다. 긴 머리가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저씨가 머리를 길러서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을 위해 가발을 만들어 준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머리는 꾸미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쓸모있다는 걸 책에서 다시 알게 되었다.

처음 장면에서 아저씨는 머리가 길어서 이상했는데 나중에 읽고 보니 되게 착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아주 대단해 보였기 때문이다.

주인공 아저씨에게는 머리카락이 길다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긴 머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특별했다. 나는 나눔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주는 것이라면 물건, 음식, 마음 어떤 것이든 좋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간식을 많이 가져와 나누어 먹기도 한다. 내가 먹을 양이 적어지긴 해도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다. 나눔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게 분명하다. 나도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용덕초등학교 3학년 **박 예 권**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예술꽃 씨앗 학교를 하면서부터 밴드를 시작했다. 마침 선생님이 추천한 책 중 힙합이라는 음악이 들어가 있는 제목이 있어 읽어보았다.

이 책에 나오는 대머리독수리인 '힙합 독수리', 수다쟁이 '짹', 미안해 병 걸린 '쏘리 라이언'은 노래도 잘 부르고 가사도 잘 쓰고 뭐든지 잘하는 것 같다. 동물들이 이렇게 노래도 가사도 잘 쓰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힙합 공연도 완벽하게 하지만 여기에다 우리가 하는 기타, 건반, 드럼까지 있으면 더욱더 완벽한 공연인데 이런 악기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8남매 엄마 아빠 모두 10명의 가족은 1년에 10번 정도 가족 공연을 하는 편이다. 동생들과 나는 노래, 형 누나는 악기를 연주한다. 연습은 학원에서, 산에서, 사회복지관 앞에서 자주 하는 편이다. 그래도 서로 마음을 맞춰 연주하기 때문에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 행사가 취소가 되어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내 생각엔 음악은 따로 연주하는 것보다 전체가 다 같이 있어야 더욱 좋은 것 같다. '힙합 독수리', '짹', '쏘리 라이언'이 자기만의 꿈과 개성을 모아 함께 공연하니 더욱더 완벽한 공연이 되는 것이다.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모두가 즐거운 걸 느꼈다.

강아지 시험

반송초등학교 3학년 박 희 요

세상에 유기견 보호소로 버려진 강아지는 몇 마리일까? 내 생각에는 약 10,000마리가 버려진 것 같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이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흔한 이별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반려견과의 이별일 지도 모른다.

동물들은 돈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그 자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하지만 그렇게 공평한 강아지일지라도 그 강아지의 주인에 따라 강아지의 가치는 너무나 달라진다.

어제 나는 이 책을 처음 접했다. 하지만 왠지 너무 두껍고 작은 글씨에 짓눌려 책의 내용조차 지루하고 어렵게만 다가왔다. 결국 책을 반도 읽지 못하고 포기했다. 조금 후 너무 재미없게만 느껴졌던 이 책을 두 번째로 도전하게 된 나는 정말 이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강아지를 키우려면 뭘 약속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별된 강아지와 같았던 이 책은 내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다시 찾게 해주었다.

이 책의 어린 소년 선후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시험을 친다. 강아지 시험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올까? 처음 나는 이별된 강아지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강아지는 그냥 원하면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강아지와 이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나는 늘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언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신없이 빠져들 것 같다. 가족과 마주하는 짧은 식사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조차 늘 강아지와 함께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선후의 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선후네 가족들은 고민이 많아졌다. 그래서 친구 재욱이가 선후에게 강아지에 대해 가르쳐 줬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아지 시험을 치게 한 선후이다. 만일 선후가 실제 내 옆에 있었다면 강아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 텐데 말이다. 신기하게도 이 책을 통해 즐겁고 달콤한 강아지에 대해 더욱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더 열심히 보면 강아지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강아지라는 열쇠를 가치 있게 닦는 별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선후야, 고마워! 강아지에 대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줘서..."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서

아림초등학교 3학년 이 설

초등학교 1학년 겨울 무렵, 가족과 오키나와 여행을 갔을 적에 돌고래쇼를 본 적이 있어요. 귀여운 돌고래 다섯 마리가 사람처럼 박수도 치고 점프도 하는데, 그때 보았던 돌고래쇼는 정말 짜릿하고 환상적인 경험이었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훈련받는 돌고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드넓은 바다로 나가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 나는 그 돌고래가 자신이 원했던 바다로 나간다면 과연 행복하기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왜 바다 쓰레기는 고래를 삼켜야만 했을까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바다에서 돌고래의 몸을 비닐봉지가 휘감고 있어서 돌고래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바다 안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괘씸해요. 무심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땅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하천→강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바다까지 오염시켜 동물들을 아프고 병들게 한다는 것을요.

언젠가 엄마께서 그러셨어요. 이 지구는 후손에게서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거라고요. 깨끗이 쓰고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셨죠.

더 이상 사람들은 고래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나는 이제부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할 거예요. 또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짧은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거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고래도 살리고, 우리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 거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지구를 지켜요!

뭔가 특별한 아저씨

법수초등학교 3학년 강 채 원

앞표지에 있는 아저씨 얼굴을 봤을 때는 뭐가 특별하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뒷 표지에 있는 아저씨 머리카락이 라푼젤처럼 길어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짧은데 왜 아저씨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

머리카락이 긴 아저씨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고 머리 감을 때나 머리 말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아저씨가 머리카락을 기른 이유는 머리카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서였다.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나의 할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치료받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다. 할머니의 모습은 스님 같기도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어색했다. 할머니도 자신의 모습이 이상했는지 밖에 나갈 때에는 가발을 쓰셨다.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도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고 친구들이 놀릴까 봐 걱정되었을 것이다.

아저씨는 힘든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여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 같다. 아저씨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받은 아이들은 기뻐했을 것 같다. 아저씨가 아이들을 생각한 마음을 본받고 싶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옷이나 음식, 돈, 물건 등을 기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싶어하는 아저씨의 멋진 마음을 본받아 실천할 것이다.

아저씨 머리카락을 본 사장님이 머리카락을 기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머리카락을 길러서 웃겼다. 한 사람의 좋은 행동이 주위 사람들도 함께하게 해서 파도처럼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나도 내 친구도 뭔가 특별한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내일 또 싸우자

화개초등학교 2학년 **황 현 빈**

여름 방학 때 돌봄교실에 갔다. 그런데 새 책이 책장에 많이 꽂혀 있었다. 나는 새 책을 구경하다가 「내일 또 싸우자!」라는 제목을 보게 되었다. 책 표지에는 두 친구가 얼굴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서로 싸우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책에는 형 상두와 동생 호두가 게임기를 서로 하려고 다투게 된다. 그렇게 말싸움, 주먹싸움, 몸싸움, 감정싸움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할아버지께 혼이 났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시 하고 싶은 싸움을 실컷 해 보라고 하신다. 나는 이 할아버지가 가짜 할아버지가 아닐까 조금 의심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이 싸우면 말려야 하는데 다시 싸움을 붙이는 게 너무 이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싸움은 싸워도 싸워도 전혀 아프지 않은 즐거운 싸움이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싸움은 바로 풀싸움, 눈싸움, 닭싸움 같은 싸움이었다. 나도 옛날에 닭싸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닭싸움을 했던 것이 떠 올랐다. 사실 닭싸움하는 방법을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방법이 떠올라 오늘 집에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특히 재미있게 느껴졌던 싸움은 바로 물싸움이다. 옷이 다 젖고 상두와 호두가 지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싸움이 아니라 놀이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았다.

난 이 책을 읽고 난 후 싸움에도 위험한 싸움과 재미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싸움을 구별해서 위험한 싸움보다는 재미있는 싸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

삼계초등학교 6학년 이 하 빈

「유튜브 전쟁」이라는 책은 양은진 작가가 독자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졌으면 해서 쓴 책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은진 작가가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에 대해 알려주는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마리, 이란성 쌍둥이인 유진이와 호진이, 그리고 유튜버인 천하장사, 도톨, 오조, 제제 등이 있습니다.

마리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와 삽니다. 하지만 아빠는 병원 빚을 갚으려고 밤이고 낮이고 일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다른 아이들은 동물을 세 마리씩 모아 터뜨리는 게임을 하거나, 사탕 소녀가 열심히 달리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리는 '이런 게임'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임'은 까꿍톡 친구들이 서로 하트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마리는 게임 속 하트조차 보내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사실 마리가 4학년 때 그래도 친구라고 부르던 아이인 A, B, 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와 C가 크게 싸웠는데, B가 A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C는 마리에게 까꿍톡을 했습니다. C는 마리에게 A와 B가 까꿍톡에서 한 마리의 뒷담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는 C가 한 마리의 뒷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이는 금이 간 것입니다.

어느 날, 마리가 운영하는 '말이야 방구야'라는 채널을 본 전교 부회장인 유진이가 마리가 올린 '길고양이 츄츄'라는 영상을 보고 너무 귀엽다며 말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와 유진이는 친구가 됩니다. 같은 반 친구이자 유진이와 쌍둥이인 호진이는 마리에게 자신의 꿈이 유튜버라며 편집을 부탁합니다. 호진이는 도톨과 천하장사의 몰카 영상을 따라 해 마리에게 영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나쁜 미디어에 속했고 마리는 이번 것까지만 편집을 해주고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호진이는 자신이 편집해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은 길고양이 츄츄가 있는 곳에서 먹이를 주는 영상이었고, 그 영상을 올리자 어떤 사람이 마리가 주던 사료와 같은 사료에 쥐약을 넣어 놓았었습니다. 츄츄는 그 쥐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다행히 츄츄가 낳은 아기 고양이 치즈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 치즈는 마리네 집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호진이는 마리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앞으로 나쁜 미디어에 속하는 영상은 올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리는 꿈꾸는 제제의 다락방이라는 유튜버 제제님의 생방송에 츄츄가 죽은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생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마리를 응원해 주었고, 유튜버 제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어느 날, 유진이와 호진이는 고양이 장난감, 밥그릇 등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마리네 집에 왔습니다. 마리가 밥을 먹은 후 설거지하지 않은 것들을 쌍둥이가 도와주었고, 전기밥통이 고장 나서 즉석밥만 먹었던 마리에게 전기밥통을 A/S 센타에서 고쳐다 주었습니다. 호진이는 계정을 삭제하고 좋은 미디어에 속하는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고, 유진이는 고양이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만드는 통조림 집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리의 아빠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에게 쌍둥이 말고 다른 친구도 생겼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민서라는 아이인데 쿠키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리와 말이 잘 통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유튜브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사용할 때 나쁜 미디어가 아닌 좋은 미디어가 속한 영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유튜버가 된다면 호진이가 만든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미디어에 속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가 유진이, 호진이, 그리고 민서와 친구가 되어서 나도 기분이 좋았고, 영원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준 유튜브 전쟁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외롭지만 착한 소녀 마리에게

쌍백초등학교 5학년 노 승 연

마리야 안녕?

나는 합천의 작은 시골 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승연이라고 해.

나는 네가 친구도 없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아빠와 외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슬펐어.

우리 반의 영준이라는 친구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눈도 나빠지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되어서 부모님께 강제로 빼앗겼거든. 그래서 막 성을 내고 성질을 부리기도 했어.

그런데 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더라구. 너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스마트폰이니까 말이야.

마리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니?

네가 길고양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면서 그 동영상을 올리는 모습은 정말 멋졌어.

나도 동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워서 나의 생활이나 귀여운 내 동생의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일을 한 번씩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알게 된 유진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호진이의 쌍둥이 누나라는 것이 참 신기했어. 그리고 전교 부회장인 유진이를 모르고 있었던 마리, 너는 더 신기했고. 어떻게 자기 학교의 전교 부회장을 모를 수가 있니? 그것도 같은 학년인데.

호진이가 동영상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올릴 때 사실 나는 걱정이 되었단다. 친구들이 알고 난리가 나서 호진이가 허둥지둥할 때 난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 그 이후에도 길고양이 츄츄의 집을 공개하는 동영상을 올려서 츄츄가 죽게 되었을 땐 나는 호진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겨우 유튜브 조회 수 때문에 츄츄를 죽게 하다니. 그렇지만 이 일 때문에 호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어 나는 박수라도 치고 싶었단다. 그리고 고양이 기르기를 그렇게 반대하던 너의 아빠가 고양이 장난감을 사오는 장면을 읽었을 때 만약 네가 내 옆에 있었다면 두 손을 마주 잡고 펄쩍펄쩍 뛰었을 거야. 정말 축하해.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하는 아빠와 혼자 남은 네가 무서워서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친구 – 츄츄와 호진이, 유진이 – 를 사귀고 불을 꺼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스마트폰이 참 고맙다고 생각했단다.

나도 유튜브를 즐겨 본단다. 가끔은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이것저것 들여다 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스마트폰은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단다. 이 책을 읽어보길 잘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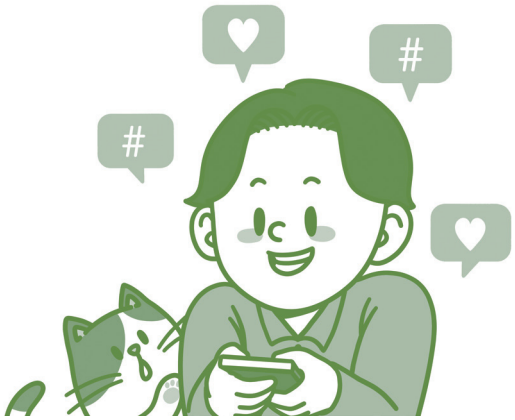
무엇보다 마리 네가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마리야.

안녕.

2020년 9월 3일

승연 씀



현실 세계와 유튜브 세계를 살아가는 세상

동성초등학교 6학년 공 지 후

주인공인 마리는 외롭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서툴렀고 길고양이 츄츄를 관찰하며 찍은 영상을 올리는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유튜브는 마리를 외롭지 않게 해 주었다. 마리는 자신에게 진짜 세상은 유튜브였고, 현실 세상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유진, 호진이가 마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두렵고 어렵게 느껴졌다. 호진이는 마리가 올린 영상과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호진이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생겨 자극적이고 나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다. 마리는 호진이가 하는 이 행동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마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신이 보살피던 츄츄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호진이의 사과로 현실 세상에 다가가게 되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를 멀리 알리고 싶어서 등이다. 유튜브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다. 유튜브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크리에이터가 콘서트를 갔다 온 영상 또는 그 연예인과 관련 있는 영상을 보며 아쉬움을 채우며 만족하는 팬들도 있다. 그리고 음식, DIY 만들기를 리뷰하거나 VLOG 등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올려서 사용 후기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도움을 주는 영상들과 달리 사기, 욕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관심을 끄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리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하고, 먹는 것을 촬영하여 올리는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음식을 다 먹은 척을 하며 먹고 뱉은 것을 편집하여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유튜브는 한번 보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보고 나면 시간이 훌쩍 가 있기도 한다. 나도 어릴 땐 유튜브를 보면서 덕질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느낀 적이 많다. 그때 난 내가 좋아하고 원했었고 유튜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지 못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땐 '내가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만약 내가 다시 크리에이터라는 꿈이 생긴다면 이젠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현실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다짐도 했다. 또 나는 지금 해 보고 싶은 꿈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다시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꾸고 싶게 되기도 했다.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게 된다면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거나 크리에이터가 꿈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유튜브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현실 세계와 유튜브 세계를 살아가는 친구들을 주제로 만들어 그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오퍼튜니티,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수동초등학교 5학년 이 진 서

나는 평소 우주, 행성, 우주의 행성들을 탐사하는 탐사 로봇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는 어떤 로봇일지 궁금해져서 책을 얼른 받아 펴보았다.

한 달, 두 달, 세 달… 무려 여섯 달 동안 날아 화성에 도착했다니 화성에 오는 동안 오퍼튜니티는 정말 심심했을 것 같다. "나는 작고 느리다. 1초에 겨우 5센티미터, 3미터를 가는데도 1분이나 걸린다. 키는 겨우 150센티미터, 태양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오퍼튜니티가 화성 탐사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가 물의 흔적을 찾아내고 인듀어런스 분화구와, 빅토리아 분화구를 탐사할 땐 오히려 저렇게 작고 느린데 용기를 내어 열심히 탐사를 하는 오퍼튜니티가 존경스러워졌다. 또 원래의 예상을 뛰어넘어 예측 수명의 60배나 더 살고 45.16킬로미터나 달린 오퍼튜니티의 노력이 무척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퍼튜니티가 모래폭풍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을 끄고 지구와의 교신도 끊어졌을 땐 '오퍼튜니티가 고장 나면 어떡하지'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오퍼튜니티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런데 오퍼튜니티가 길 가다가 전원이 꺼지기도 하고, 바퀴는 덜컹거리고 로봇팔이 삐걱거리며 낡기 시작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계속하는 오퍼튜니티의 끈기를 본받고 싶어졌다.

난 오퍼튜니티의 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구의 누구도 와보지 못한 길, 어쩌면 우주의 그 누구도 와보지 못한 길, 내가 만든 길, 나의 길,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의 오늘도 나의 길을 간다."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임무 종료"라는 말을 들을 때 왠지 내 마음 한편이 찡해졌다. 나도 오퍼튜니티처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간다.

유튜브 전쟁

문선초등학교 5학년 **정 민 주**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유튜브 전쟁'이라는 책을 빌려와서 읽었다. 읽게 된 동기는 여름 방학 숙제이기도 했고 제목도 심상치 않아서이다.

우선 이 책의 줄거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혼자 남겨진 채 휴대폰만 하는 마리의 이야기, 그런 마리의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인 마리의 일상을 읽고 깜짝 놀랐다. 마리의 일상은 컴컴한 집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많이 울기도 하다가, 밥을 먹고 다시 휴대폰을 하는 것이었다. 마리의 아버지는 매일 늦게 집에 오셔서 마리는 항상 혼자 저녁을 먹는다. 먹는 거라고는 즉석밥에 참치캔을 먹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는 마리가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다. 혼자 밥을 먹는 걸 요새는 '혼밥'이라고 한다. 마리는 혼밥을 매일 해서 좀 외로울 것 같다.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마리는 '유튜브'라는 어플로 '꿈꾸는 제제의 다락방'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 외로운 느낌을 덜 느낄 수도 있겠다.

마리는 길고양이를 돌봐준다. 마리의 유튜브 채널도 길고양이를 찍어서 조금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린다. 길고양이의 이름은 '츄츄'이다. 츄츄는 정말 귀엽고 이쁘게 생겼다. 부드러운 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꺄아! 이것이 바로 심장폭행인건가.. 하여튼 이 날도 마리가 츄츄에게 밥을 주러 골목에 갔다가 '유진'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유진이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고 얼굴도 이뻤다. 마리는 친구와 둘이 있는 게 어색했다. 마리가 약간 소심해서이다. 나였어도 친구가 오랜만이라 그랬을 것 같다. 유진이는 마리에게 말을 걸었고 둘이 츄츄를 돌보며 친해졌다. 마리는 설렐 것 같다! 바로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이다. 나는 새 친구를 사귀면 하루하루가 설렌다.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결말은 유진, 마리가 친구가 되고 마리, 마리의 아빠는 같이 저녁을 매일 같이 먹고 츄츄의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락가락했다. 특히 츄츄가 사료를 잘못 먹고 죽었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또 유진이 동생 호진이가 친구 국에 바퀴벌레 장난감을 넣었을 때 화가 났고 또 마리의 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펐고, 마리와 마리의 아빠가 츄츄의 새끼 '치즈'와 놀아줄 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많고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 준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런 책이 열 권만 더 나오면 정말 좋겠다. 질리지도 않고 재밌고, 궁금하고…. 오만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 줄 것 같기 때문이다.

또 이 책에 나온 마리라는 아이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깊고 어른같은 아이이다. 이야기 흐름도 좋고 내용도 완전 완전 재미있었다. 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웠던 책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리가 소리 없이 운다는 방법을 안다고 했다. 이유는 자기가 많이 울어봐서라고 했다. 얼마나 많이 울어봤으면 그럴까…. 마음이 아팠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동생아! 이제부터 재미있는 놀이로 싸우자!

함양초등학교 4학년 김 도 희

요즘 코로나19로 동생이랑 둘이 집에 있을 때가 많아 우리는 자주 싸운다. TV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보려는 동생은 뜻대로 안 되면 나를 때리거나 놀린다. 그때마다 "하지 마"라고 동생에게 말하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혼자 참다가 화를 터뜨리며 같이 때리고 놀리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생과 내가 싸우면 엄마는 나한테 누나니까 참으라고만 한다. 아빠는 동생 편을 들 때도 내 편을 들 때도 있는데 내 편을 들 때는 통쾌하지만 동생 편을 들 때는 분했다.

그런데 읽게 된 책 제목이 '내일 또 싸우자'였다. 내가 동생이랑 맨날 싸우기는 해도 '뭐지? 싸우는 건 안 좋은 건데?'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보게 되었다.

방학이어서 할아버지 댁에 온 형 상두와 동생 호두는 혼자 게임기를 차지할려고 싸웠다. 말싸움, 주먹싸움을 하던 중 밭에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돌아와 말렸다. 그런데도 계속 감정싸움을 하자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제대로 싸움을 해 보자고, 또 싸우고 싶은 싸움을 해 보자고 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아니 할아버지가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워 보라고, 또 싸우고 싶은 싸움을 해 보자고 하다니 말이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장면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눈과 입을 벌리며 놀란 표정인데 나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절로 책에 빠져들어 읽었다. 백을 셀 동안 여러 풀을 많이 뜯어오는 풀싸움, 눈을 먼저 깜빡이면 지는 눈싸움도 했다. 한쪽 다리를 잡고 하는 닭싸움도 했지만 상두가 형이니까 자기가 이긴다고 다른 것을 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퀴즈를 맞히는 머리싸움도 했지만 둘 다 몰라서 무승부, 토끼풀 꽃줄기를 찾아서 서로 엇걸어 당겼을 때 줄기가 안 꺾이는 사람이 이기는 꽃싸움, 연싸움, 개울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물싸움도 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여 돌아가는 길에 둘은 "내일 또 싸우자!"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난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놀이도 많이 나오고 잘 모르는 놀이도 꽤 많이 나왔다. 잘 모르는 놀이는 꽃싸움, 풀싸움이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아 이런 놀이구나! 오 신기해.'라는 생각이 연거푸 들었다. 해 보고 싶은 놀이는 풀싸움, 머리싸움이다. 외할머니댁은 시골이라 마을에 다양한 풀이 많은데 동생이랑 풀싸움을 하면 신날 것 같다. 머리싸움은 많이 해 봤지만 재미있고 할 때마다 새롭다. 우리 반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맞추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책을 다 읽고 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싸움이 치고 박는 싸움이 아니였고, 다른 의미로 놀이나 게임을 통해 잘 화해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동생이랑 싸우고 싶을 때는 눈싸움, 닭싸움, 풀싸움, 보드게임 등을 하며 동생과 재미있는 싸움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이 책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

관계를 그리는 동안

죽림초등학교 6학년 **김 예 란**

우리 사회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보호자,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관계는 맺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새 학기에 만나는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 힘든 것처럼 또한 맺혀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의 원인은 우리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의 주인공 이진아도 선생님과의 관계, 소연이와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물론 이진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소연이의 도우미가 되어서 얼떨결에 오카리나를 같이 부르게 되며 소연이와 같이 가느라 지각까지 하면서 진아는 소연이와 친구 관계를 맺는데, 큰 어려움을 매번 겪게 되기도 한다. 만약 내가 진아였다면 난 이미 때려치웠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리 부족하고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학교생활을 하는가. 되돌아보면 내성적인 진아가 내심 대단하기도 한 아이라 생각했다. 매일 불안함과 걱정을 껴안고 생활하는 진아가.

이 작품의 맨 앞 황선미 작가의 말을 보았다. 우리는 다르다. 모든 게 다르다.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에서는 조금 부족한 아이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 학교도 '학습 도움반'이라는 곳이 있다. 또 우리 반에 다른 나라에서 와 그곳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있다. 물론 그곳에서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반에서 서로 도와주는 진아와 같은 역할일지 모른다. 이렇게 무작정 반에서 '묵묵히 잘하는 애, 도우는 걸 좋아하는 애' 등으로 골라 도와달라 요구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어른들은 말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리보다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부족한 아이를 알아주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어른이 어린이의 모범이 되고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 무언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나 또한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뿐이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길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인들은 거의 극소수에 달한다. 물론 도와주고 돕는 것이 민망하고 힘들더라도 돕는 것은 큰 용기이다. 남이 선뜻하지 않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사실 내 주변에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대에게 큰 실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인간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을 보며 마무리를 하면서 느꼈다. 내 행동이 남에겐 어찌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한 끗 차이다. 진아와 소연이의 관계, 친구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끊어지진 않았다. 이것은 그들 관계가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닌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여도 어색한 사이여도 조금은 안 친한 사이여도 마음은 닿을 수 있다. 누군가 지칠 때 위로와 격려 한 마디, 누군가 기쁠 때 같이 공감해 주는 말 한마디, 이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관계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고 쉬운 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개쯤의 관계는 있으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 뿌리에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한 줄 한 줄 그려 나가는 걸. 나중이 되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순간까지.

나의 다짐

신현초등학교 5학년 나 연 수

저는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캐릭터들과 게임 컨텐츠들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 전쟁'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한껏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들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갑 친구 마리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리는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며 오로지 유튜브 속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길고양이 츄츄를 보살피던 마리는 츄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던 마리는 고양이의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진짜 세상이 아닌 유튜브 속으로 숨는 마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마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에게 친구가 생긴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불 텐트 속에서 마리를 꺼내줄 친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호진이를 도와주며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하지만 오로지 구독자 수만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영상을 제작하는 호진이를 보며, 다시 자신의 생각을 숨깁니다. 호진이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외면하지만 츄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후 마리는 후회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고, 원하지 않는 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물을 잃은 마리의 슬픔이 느껴져 저도 슬펐지만, 마리가 진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응원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마리는 아기 고양이 치즈와 함께 유튜브 속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 속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마리를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진이처럼 어려운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어른들은 유튜브의 나쁜 점만을 강조하며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어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동영상,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옳지 않은 컨텐츠들. 이것들의 나쁜 점을 알고 좋은 컨텐츠와 나쁜 컨텐츠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유튜브 세상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높은 인기와 많은 구독자 수를 따라다니지 않고, 학교와 친구 관계가 힘들다고 유튜브 속 세상으로 숨지도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나의 결심이 나를 유해한 영상들에게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양날의 검 유튜브

장천초등학교 5학년 최 민 아

도서관에 갔다가 《유튜브 전쟁》이란 책의 제목을 보고 흥미가 생겨서 읽게 되었는데 나는 이 이야기가 책 속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법한 사건들과 유튜브의 문제점을 콕 꼬집어 준 책이다. 나는 책의 장면 중에서도 유호진이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주제로 몰카를 찍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국 통에 바퀴벌레 모형을 넣고, 친구의 책상에 협박 편지를 넣는 호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화가 나고, 호진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식의 도가 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도대체 그 '관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조회수, 좋아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내 친구들이 나에게 몰카를 한 영상을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난 몰카를 당했을 때만 해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 영상이 얼굴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유튜브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졌다. 다행히도 나는 친구의 계정에 구독을 해 놓은 상태여서 곧바로 알림이 와 영상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어 친구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금방 삭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알림이 오지 않아 영상이 퍼져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다. 그래도 내가 당한 몰카는 호진이의 몰카에 비해 약한 수준인데 호진이의 몰카에 당한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호진이였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그런 나쁜 영상은 절대로 찍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송 매체인 유튜브는 나도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주로 학교 숙제를 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하지만 가끔 여가를 즐기기 위해 보기도 한다.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이 더욱 검색 결과가 많을 정도로 유튜브엔 데이터가 매우 많고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허위사실과 거짓 정보도 많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원하지 않아도 접하게 되는 유해하거나 불쾌한 영상들이 넘쳐나고, 그런 영상들은 모방위험 등의 위험이 많다. 이처럼 유튜브는 유익하면서도 유해한 면이 존재하는 양날의 검 같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해서 읽었는데,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유튜브 전쟁'은 유튜브와 유튜버들의 문제점을 잘 찾아내 얘기해 준 것만 같은 책이다. 나도 유튜버라는 꿈을 잠시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꿈이 바뀌기사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유해한 영상이나 선정적인 영상들을 올리는 저질 유튜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035 **나에게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를 읽고
수월중학교 2학년 공 경 빈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037 **권력의 부패를 풍자한 우화** – 「동물농장」을 읽고
경해여자중학교 1학년 김 민 서

039 **나의 페인트** – 「페인트」를 읽고
물금중학교 3학년 신 지 원

041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를 읽고
삼가고등학교 2학년 문 수 진

043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역사라는 이정표** – 「역사의 쓸모」를 읽고
통영중앙중학교 3학년 김 유 빈

경상남도교육감상 일반 대상

045 **믿음과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의 시간** – 「설이」를 읽고
창원시 의창구 이 지 영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나에게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수월중학교 2학년 공 경 빈

길고 긴 시간만큼 힘들고 지친 봄을 보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는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새 학년 새 학기 부푼 기대와 설렘은 오랜 기다림으로 서서히 지쳐가고 마음껏 웃으며 공부하던 교실, 그 속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생님을 그리워했던 5월의 어느 날, 나는 처음 이 책을 만났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읽는 내내 안타까움에 마음 아파하며 속상함에 슬픈 마음이 밀려오는 것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나의 이야기이며 한 번쯤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슴 뭉클하고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이 감정은 아마도 '공감'일 것이다.

작년 나는 20여 분 학교 버스를 타고 도착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3개 학급 70여 명 남짓한 6학년 친구들과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 맞이한 나의 첫 중학교 생활은 마냥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무려 9개 학급 250여 명의 친구들은 입학 첫날부터 그 규모에 놀라웠고 낯설음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은 나 포함 4명만 이곳으로 배정받아 각각 다른 반으로 떨어진 터라 반에 아는 친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다.

나는 혼자였다. 중학교 인근 두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며 점심시간이며 삼삼오오 모여 다들 즐겁게 놀고 있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나는 그들에게 선뜻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지켜보다가도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칠 새라 혼자 바쁜 척하며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해야 했다. 매일매일 학교가기가 두려웠고 혼자라는 게 너무 싫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야 했다.

고민 끝에 문득 초등 6학년때 우리 반에서 한참 여러 종류의 샤프가 유행한 적이 떠올랐다.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받은 조금은 특이한 샤프나 여러 필기구를 총동원해 펼쳐지는 필통에 넣은 후 자연스레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 쉬는 시간 나는 자리를 피했다. 다행히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니 어느새 내 필통은 우리 반 스타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얼마 후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PC방에 처음 가 본 나는 눈도 아프고 두통에 심지어 속까지 울렁거리는 고통을 참아야만 했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PC방에 못 가는 이유를 둘러대야 했다. 나만 빼고 모여 있을 때나 이야기할 때는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다현이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다섯 손가락 멤버에 남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다현이의 모습은 그때 나의 모습과 같았다. 불안함과 눈치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 때마침 교내 합창대회가 있었고 유일하게 변성기가 오지 않은 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프라노를 맡았고 무대 앞에 나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반은 최우수상을 받았고 나 역시 자신감이 생겼다. 2학기 들어서는 학급 반장도 하였고 학교 축제 사회 오디션에도 참가하였다. 늦은 저녁,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다시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까지 오디션 대본을 썼으며 쉬는 시간 틈틈이 대본 수정과 오디션 연습을 하였다.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오디션에 합격한 나는 축제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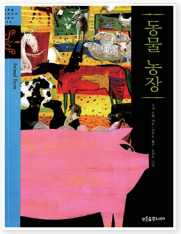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기 초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모습과 자리를 찾는 방법은 학교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이다. 또,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등 왕따를 시킨 적이 없다. 처음 만난 나를 알아 가기에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고 친해지기 위해 어색한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의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의 꽃이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차디찬 한 밤의 냉기와 외로움을 이겨야 했다. 어렵게 피어난 꽃도 한 송이일 때보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꽃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늦은 중2 새 학기 시작과 격주 등교를 하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 동창이나 같은 반 남자 친구는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나는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권력의 부패를 풍자한 우화



경해여자중학교 1학년 김 민 서

「동물농장」을 읽는 내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권력을 쉽게 놓지 못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결국 타락에 이르는 경우는 책 속 뿐 아니라 나의 관심 분야인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어떻게든 권력의 불평등을 인식한 사람들이 타락한 독재자들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력을 손에 놓은 사람들 또한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고, 권력의 악순환은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 계속되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란 책에서는 권력과 독재 이야기를 우화로 풍자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메이저의 연설과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란 곡을 필두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치 동학농민운동처럼 최하위계급이 〈동물주의〉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무능한 통치자를 상대로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동학농민운동과 달리 존즈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은 성공한다.

그 후 글을 아는 돼지들을 중심으로 〈동물주의〉사상과 7계명 아래 '동물농장'이란 이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7계명에는 문제가 있다. 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7계명을 바꾸어 버린다는 데 있다. 나폴레옹 같은 권력자가 함부로 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권력자에게 집중된 힘을 분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처럼 '동물감시단'을 만들었어도 좋았을 듯 하다.

지배층인 돼지들이 쌀을 독차지하는 등 특권을 누리던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스노볼과 대립하던 나폴레옹이 들개들을 앞세워 스노볼을 쫓아낸 후 권력을 장악한다. 그 후로도 나폴레옹은 7계명을 고쳐 가며 동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독재를 이어갔다. 또한 달변가 돼지 '스퀼러'를 이용해 쫓겨난 스노볼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처음엔 믿지 않던 동물들도 어느새 스노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모든 사태를 스노볼이 그랬다고 단정짓는 나폴레옹 일당과 그걸 또 믿는 순진한 동물들을 보니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했다. 스노볼에 대한 동물들의 막연한 공포심이 자신의 입지를 다져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끄는 등 나폴레옹에게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동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던 건 아니다. 암탉들은 서까래로 날아 올라가 달걀을 떨어뜨리고, 식용 돼지들은 꿀꿀대며 항의하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힘으로 그들을 억눌렀고, 두려움에 떨던 동물들은 무조건 복종했다. 만일 동물들이 한 번이라도 나폴레옹이 무조건 맞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더라면「동물농장」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나폴레옹에게 복종하는 동물들은 그동안 '풍차 건설'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들과의 '풍차 전투'로 인하여 힘들게 세운 풍차는 다 무너져 버렸고, 늙은 말 '복서'는 풍차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없는 노동을 하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 묵묵히 일만 하는 동물들을 보니 끊임없는 노동에 대한 측은함과 나폴레옹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교차했다. 정작 복서가 그렇게 신봉하던 나폴레옹은 그를 폐마 도축업체에 팔고, 위스키를 받아 장사를 하는 등 동물들의 신뢰를 짓밟고 있는데 말이다. 고된 풍차 노동의 대가는 고작 위스키 몇 병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돼지들이 인간과 비슷해져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동물들의 거래이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인간들 사이에서 거래는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 내 생각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7계명을 어겼단 인상을 심어주려 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은 근로자들이 했는데 이익은 지배층이 독점하는 불합리한 현실 혹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려는 인간들을 비꼬고 싶었던 듯하다.

무엇이 동물농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개혁가 스노볼의 축출, 나폴레옹의 집권, 아니면 7계명의 문제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 그러니까 동물들의 의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의 독재 또한 동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다. 동물의 본성이 그런 한 독재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독재자와 성군을 잘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시민들의 몫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나의 페인트

물금중학교 3학년 **신 지 원**

소설 페인트를 다 읽었다. 권장 도서 목록을 한 번 훑어보던 중 이 책을 발견한 나는 망설임 없이 곧장 구매를 했다. 몇 달 전 1분가량의 짧은 도서 소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책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를 면접을 통해 선택한다는 내용만 얼핏 기억하고 있던 나는, 택배가 도착하던 날 곧바로 책을 펼쳤다. '부모 면접'이라는 신선한 소재에 단순한 호기심을 느껴 책장을 펼쳤던 난 마지막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을 때쯤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페인트의 주된 내용은 NC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면접을 통해 부모를 찾는 것이다. 주인공 제누 301은 몇 년 뒤 성인이 되면 NC 센터를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성인이 되기 전 페인트(parent's interview)를 통해 부모를 만난 아이들만이 NC 센터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있기에 대부분 일찍이 부모를 만나 센터를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제누 301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NC 센터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나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와 닿았다. NC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새로이 칠해 나가고자 했던 페인트처럼, 내가 이들과 같이 내 삶을 칠하고자 하는 페인트 통에 작은 울림이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특히나 책장을 넘기던 손을 잠시간 멈추게 만든 구절은 102p.의 "세상 어떤 부모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구절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든 부모는 예행연습 없이 부모가 되었기에, 또한 나도 부모가 되어 본 적 없이 부모가 될 것이기에. 하지만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부모는 학교에서 보는 지필 고사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도, 누군가 채점을 해 주지도 않는다. 다만 다음 시험 때 잘 보면 된다는 말처럼 부모 또한 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공감했던 구절이 있다. 119p.에서 하나가 했던 말인데, "…아이는 절대 실험 대상도 연구 대상도 아닌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잖아요."라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아이가 거의 처음으로 마주하는 어른인 부모는 어릴 적 자신에게 부족했던 교육과 옷차림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과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대신 해내기를 바란다. 자식에게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책 속에서 제누 301은 하나의 말을 듣고 '아무리 하나의 어머니가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동경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어머니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한다. 나도 이 부분을 읽고는 제누 301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내가 와닿았다고 느낀 구절들은 분명 작은 울림이었으나, 결국 나의 페인트가 든 통을 두드렸고, 그 결과 아직 어떤 색을 가졌는지 모를 내 미래를 색칠할 페인트를 물결치게 만들었다.

더불어 페인트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해 봤다. 페인트가 'parent's interview'의 은어라는 사실은 책을 보며 알게 됐다. 하지만 책에서 이따금 언급한 것처럼 NC 센터의 아이들이 어떤 색으로, 어떤 부모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색칠할지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됐다.

내가 앞서 하나의 말에 공감했던 건 나도 어머니와 비슷한 일로 마찰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일본에 역사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공동묘지에 참배를 드리러 갔었다.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고 아직 신원을 밝히지 못한 유골을 가족분들께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서 내게 이 곳에서 느낀 소감을 짧게 글로 써 낭독해 주길 부탁했었다. 내가 쓴 글은 이 곳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팸플릿에 실어주겠다고 했었다. 나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내가 글을 쓰길 바라셨고, 나는 그날 어머니와 정말 심하게 다퉜다. 하나와 하나의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상황임을 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내게 있어 그 일이 다시없을 기회이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안다. 하지만 나는 온전히 역사를 배우러 간 입장에서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방해 없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물론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 쓰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가 하는 말을 보며 이 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책을 구매했을 때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버지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다고 한다. 나도 이 책을 추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 추천해드리고자 한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처음 누군가의 부모가 된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NC 센터 소속 아이들과 달리 면접 없이 부모를 만난 모든 아이들에게도 말이다.

페인트라는 책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너무도 많은 생각이 들어 한 단어 단어를 쓸 때조차 망설여지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이 책을 덮으며 느꼈던 묘한 감정의 출처를 밝히기도 망설여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이 처음이기에 서툴 듯이,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부모는 처음이기에 서툴다는 것을. 아직 내가 불완전하듯이,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나도 부모님도 하나의 존재로서 지금을 살아내고 있음을.

오늘도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 NC 센터의 아이들은 이제 어떤 색으로 자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갈지를 생각해 보길 바라며, 페인트 북에세이를 마친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삼가고등학교 2학년 **문 수 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버텨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에만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특별하다는 뜻이다. 사실 가깝게 생각하면 청소년기는 너무 길다. 공부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다. 그렇지만 멀리 보는 눈을 가진다면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짧고 고귀한 순간이다.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친구들과 모여 앉아 급식을 먹는 것도, 이야기를 하며 같이 하교하는 일도 그저 잠깐 반짝 빛나는 순간일 뿐이다. 이 짧고 귀한 시기를 더 보람차고 웃으며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를 읽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 책은 주인공인 다현이를 필두로 여러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변화와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심리전을 이야기하는 청소년 소설이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청소년기 친구들이 겪는 관계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 상황에서 나 자신보다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초점을 둔다. 나의 입장보다는 친구의 입장, 이렇게 말이다. 물론 친구를 생각해 주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정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맺은 채로 태어난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그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복잡해진다.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서로 노력해야 '나'와 '너'의 관계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껌처럼 끈끈하다가도 어느 순간 미련 없이 끊어져 버리는 것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관계를 가장 먼저 많이 배우고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등의 질문은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던지지 말자. 관계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약간의 흠집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말이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것은 그렇게 생긴 갈등과 흠집을 어떻게 메꾸느냐이다.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때론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눈치를

보기엔 힘들지 않은가, 걱정과 근심은 멀리 날려버리고 당당함과 용기를 나에게로 가져오자. 이 두 가지를 나에게로 가져오기에 성공했다면 벌써 반 이상 온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자연스레 '자신감'이라는 것이 선물처럼 생겨났다. 그리고 좁디좁은 교실을 향해, 넓디넓은 세상을 향해 '나'를 외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나를 한 번 바라보자. 한결 편안하고 밝아진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관계는 이리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다짐하자.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라고 말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역사라는 이정표

통영중앙중학교 3학년 **김 유 빈**

화면 너머로 뵈었던 최태성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좋은 기회로 진로 선생님께 추천받아 읽게 되었다.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역사 강의를 하셔서 자주 강의를 보다 보니 책을 읽는 동안에도 선생님의 목소리, 말투가 떠올라 더 집중하고 빠져서 책을 읽었다.

책 제목에 걸맞게 누군가에게는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역사를 왜 배우며, 역사로 깨닫는 것들을 통해 역사의 쓸모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는 책이다. 1장부터 4장까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이때까지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게 해 준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박상진 판사의 이야기를 담은 '꿈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여야 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제시대 판사였던 박상진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뒤 사표를 낸다. 똑똑했던 그가 일본의 말에 협조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상진은 조선 사람에게 영웅인 사람들에게 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신은 판사의 자리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아야겠다 결심한다. 박상진은 판사라는 꿈을 꾼 것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려고 판사가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공감했다. 이 이야기를 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명사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명사의 꿈을 정하면 빨리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지 않았고, 나도 나에게 물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나에게 물을 수 있었다. 나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내 주위에 나처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박상진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오랜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꿈에 대해 질문해도 겁먹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끝으로 바다 너머를 상상하는 힘을 가진 장보고의 이야기이다. 장보고는 평민이고 그때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기에 평민들의 삶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그래서 장보고는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고 당나라에서 외인부대에 들어가 군인이 되게 된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다시 도전하기 위해 신라로 오게 되고 해적들에게 끌려가는 신라 사람들을 보고 해적을 소탕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진다. 그렇게 장보고는 완도 앞바다에 청해진을 세우고 그 뒤로는 해적이 난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장보고는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고, 한계를 뛰어넘고자 도전했다는 사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다니지 못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나의 변명일 뿐이고, 나를 계속해서 굴레에 가두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보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굴레에 가두는 생각은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기에 굴레를 벗어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장보고처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장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방법을 앞으로 찾아 나가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갇힌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역사의 쓸모를 읽으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던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더 나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주위에 의지하고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아무 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역사에 기대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역사를 배우며 얻는 정보가 쓸모가 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쓸모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알 수 있게 해 준 책이다.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믿음과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의 시간

창원시 의창구 이 지 영

올 봄이 시작될 즈음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읽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에 푹 빠져서 재미있게 읽어 가다가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부터는 주인공 동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으로 며칠을 혼자 마음앓이를 했다. 가족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할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결정한 동구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꼭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야 했는지, 작가에게 따져 묻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설이'를 읽었다. 소설 뒤 작가의 말처럼 '동구'에 대한 미안함에 비롯된 탓인지 '설이'는 동구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설이는 1월 1일 눈 오는 날 풀잎보육원에 버려진 아기였다. 커가면서 영특하고 똑똑했으며 그 만큼 자신의 주장이 분명한 아이다. 3번의 파양을 겪으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보육원의 도우미였던 '이모' 덕분에 자신의 고단한 삶을 편히 누이고 쉴 수 있었다. 설이와 이모가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여겼던 '곽은태소아과' 원장님과의 인연은 힘든 나날에 더없이 행복하고 고귀한 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이가 우상초등학교로 6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가면서 영악한 시현의 술수에 휘말려 여러 괴로움을 겪는데 시현의 아버지가 곽은태 의사선생님인 걸 알고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시현이 학교폭력과 다름없는 일을 벌이고 그 사건의 피해자인 설이는 그 일을 계기로 곽은태 선생님 댁에 가서 살게 된다. 하지만 고고한 48층 아파트도, 꿈꾸던 부유한 부모님과의 생활도 막상 겪어보니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이모의 무한한 사랑과는 견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설이는 시현이네와 살면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오롯이 자신을 믿어 주고 조용히 지켜봐 주던 이모의 무심함이 사실은 깊은 신뢰라는 걸. 그래서 그 뒤 시현네 가족에게도 어떤 조건이나 안락한 삶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환자나 보호자들에겐 한없이 친절하고 다정했던 곽은태 선생님은 정작 자신의 아들인 시현에게는 엄격하고 단호했다. 뒤늦게 시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 학교에 다니면서 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기에 이해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난 설이를 보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진한 아이라인에 붉은 색 틴트를 바르고 다니며 어른들의 말마다 당당하다 못해 버릇없이 보일 만큼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억울함만 가슴에 가득 차서 어른들의 말은 무조건 내치면서 패악을 부리고 흰자위만 보이며 눈을 흘겨본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분노에 차서 어른의 팔을 깨물고 할퀴고 소리를 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도 그 무던한 이모처럼 있는 그대로 아이를 봐주고 '아이니깐 그런 거'라며, 참고 기다려 주었을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이야기 속 곽은태 선생님은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허드렛일 하는 어머니가 부모님이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반듯한 부모, 부유한 환경, 높은 수준의 교육적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아들 시현을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밉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나는 곽은태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하며 살아라, 왜 고마운 줄 모르니?'였으니깐. 나는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 살지 못했다. 그 시절 4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야 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댁에서 살았다. 나는 중 2때가 되어서야 부모님과 한집에 살 수 있었다. 우리 4남매를 할머니는 살뜰히 키워 주셨다. 매일 다른 반찬을 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다. 동생들 챙기고 할머니 거들어 집안일 하고 밭에서 일도 했다. 물론 그 시절이 지금은 제일 그리운 시절이긴 하지만 6학년 졸업할 즈음 한 친구가 '너 고아지? 엄마 아빠 없지?' 했던 말은 아직도 내 가슴 깊이 가시가 되어 박혀 있다. 엄마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그 증거를 댈 수 없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은 한 달에 두어 번 오는 우리 부모님을 본 적이 있지만 다른 동네 사는 친구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할머니가 오시는 것만 봤으니 그런 오해를 한 것이었다. 그 이후 나는 엄마가 되면 꼭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내가 밥 해서 먹이고 내가 옷 빨아 입히고 내가 잠을 재우고. 어디든 '엄마'가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큰 아이 1학년 때에는 열심히 녹색어머니회, 도서관 도우미 등 일과 병행하며 열심히 참여했다. 되도록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었고 되도록 아이가 좋아할 일을 미리 챙겨서 해 주고 싶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감사보다는 불만이나 불평이 많았다.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나는 아이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라며 소리치고 야단을 치면서 흥분하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땐, 내가 너만 했을 땐'하면서 시작하면 아이는 이 일이 그렇게나 흥분할 일인가 하는 눈빛으로 나를 힐끗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 아이에게 어린 시절의 나로 덧씌워 놓고 행복하지? 정말 좋지? 고맙지? 하면서 자기만족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자기 위안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곽은태 선생님을 보면서 자기반성을 많이 했다. 좀 더 반듯하게 자라길, 좀 더 기본은 갖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말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았다.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가 얼마나 바쁜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아이에게 안기고는 원하는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실망하고 야단을 치기도 했던 것 같다.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이고 아이에게 복잡한 조건부로 사랑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도 설이처럼 6학년 2학기 중이다. 주변에 보면 영어 수학 학원은 기본이고 매일 푸는 문제집의 양도 엄청나다. 다들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지금을 놓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한다, 무슨 배짱으로 공부를 안 시키냐고도 한다. 나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스스로 미리 챙겼으면 좋겠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강했으면 좋겠다. 자기 할 일은 스스로 하고 공부도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질문도 자주 하고 대화도 자주 했으면 더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보는 중이다, 아이가 '초등학생은 놀아야 된다.'를 내세우면서 '중학생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켜보면서도 조심스레 묻는다. "지금이라도 학원에 갈까?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좀 살까?" 그러면 아이는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단다. 요즘은 본인이 선택한 온라인 학습을 하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번에 받아온 성적표도 좋은 편이라 아이를 좀 더 믿어주기로 했다. 중학생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빨라지고 아이들은 그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들은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할 듯하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잘 자랄 수 있다. 부모가 자라날 아이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꼭 최선이나 최고의 선택도 아닐 것이다. 미리 깜박이를 켜고 앞장서기보다 아이가 손을 내밀 때 따뜻하게 잡아주고 아이가 쉴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다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주인공 설이와 시현도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미래를 향해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모의 따스한 손길과 부모님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말이다.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북디자인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052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요**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자여초등학교 2학년 권 나 경

053 **애국으로 지킨 빛나는 보물들** – 「간송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를 읽고
남양초등학교 6학년 김 하 란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054 **모리셔스 섬과 고래의 눈물**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남지초등학교 1학년 곽 지 현

054 **우리가 지키는 동물원** – 「내일의 동물원」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1학년 김 재 준

055 **바다! 우리가 함께 지켜요**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가좌초등학교 2학년 박 솔 민

055 **쓰레기 괴물을 이기는 방법!**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남해초등학교 2학년 박 하 린

056 **레벨 2** – 「강아지 시험」을 읽고
대성초등학교 3학년 오 정 윤

056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예림초등학교 3학년 이 동 주

057 **내일의 동물원** – 「내일의 동물원」을 읽고
호암초등학교 1학년 이 지 윤

057 **고래를 삼킨 바다쓰레기** –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읽고
함양초등학교 1학년 정하영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058 **같이 놀자! 책 풍계묻이** – 「강아지 시험」을 읽고
의창초등학교 2학년 한 희 성

058 **우리의 대한** – 「어린 만세꾼」을 읽고
중곡초등학교 4학년 김 나 예

059 **우리 모두 다 친구** –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고소했대」를 읽고
진해남산초등학교 6학년 김 소 희

059 **그 무엇이라도 애국심 꺾지 못하리** – 「어린 만세꾼」을 읽고
칠서초등학교이룡분교장 6학년 노 희진

060 **어린 만세꾼들의 눈동자에서 파란 하늘을 보았다** – 「어린 만세꾼」을 읽고
가좌초등학교 6학년 박 수 빈

060 **강우의 눈물** – 「셧다운」을 읽고
월성초등학교 5학년 박 정 빈

061 **경축! 오퍼튜니티 화성 탐사 졸업!** –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를 읽고
외동초등학교 4학년 박 준 성

061 **호진이의 반성** – 「유튜브 전쟁」을 읽고
문선초등학교 5학년 안 정 현

062 **반대하는 우리들** – 「우리는 반대합니다」를 읽고
수남초등학교 5학년 이 수 민

062 **유튜브와의 우리 일상**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아림초등학교 6학년 최 서 영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요

자여초등학교 2학년

권나경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애국으로 지킨 빛나는 보물들

남양초등학교 6학년 **김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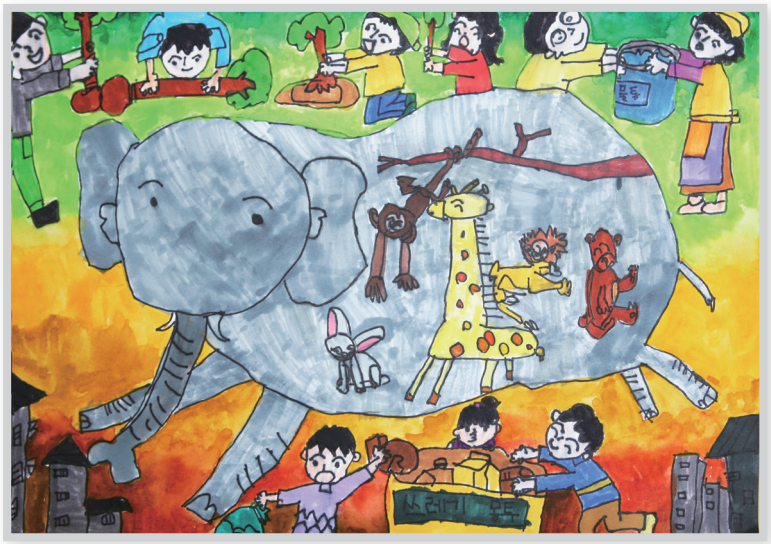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모리셔스 섬과 고래의 눈물

남지초등학교 1학년 **곽지현**

우리가 지키는 동물원

삼계초등학교 1학년 **김재준**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바다! 우리가 함께 지켜요

가좌초등학교 2학년 **박솔민**

쓰레기 괴물을 이기는 방법!

남해초등학교 2학년 **박하린**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레벨 2

대성초등학교 3학년 **오정윤**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예림초등학교 3학년 **이동주**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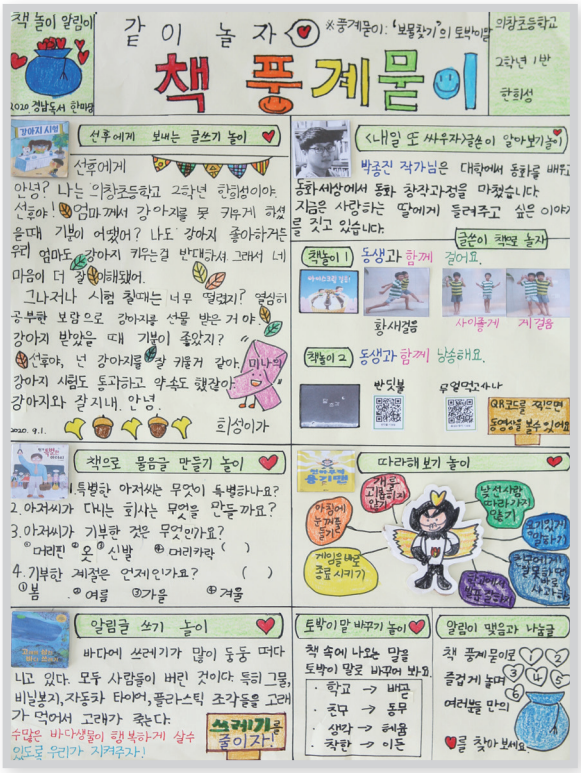
내일의 동물원

호암초등학교 1학년 **이지윤**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함양초등학교 1학년 **정하영**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같이 놀자! 책 풍계묻이

의창초등학교 2학년 **한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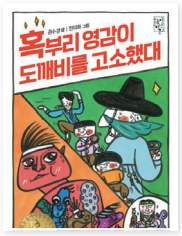
우리의 대한

중곡초등학교 4학년 **김나예**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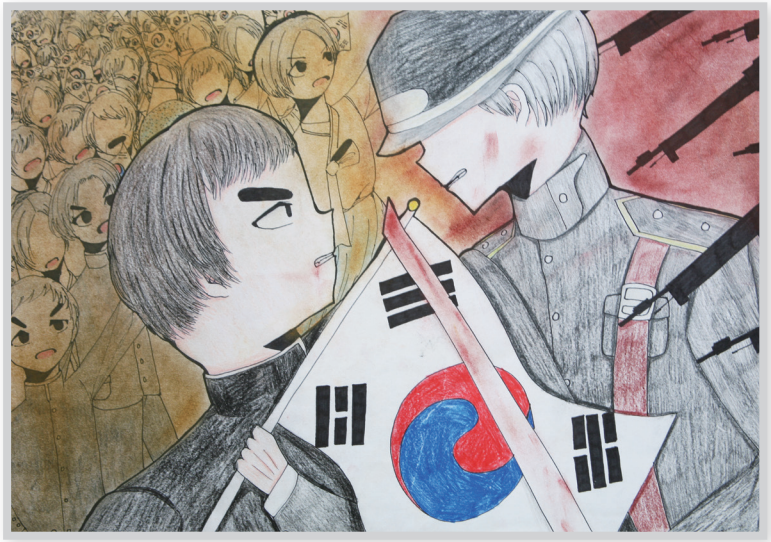
우리 모두 다 친구

진해남산초등학교 6학년 **김소희**



그 무엇이라도 애국심 꺾지 못하리

칠서초등학교이룡분교장 6학년 **노희진**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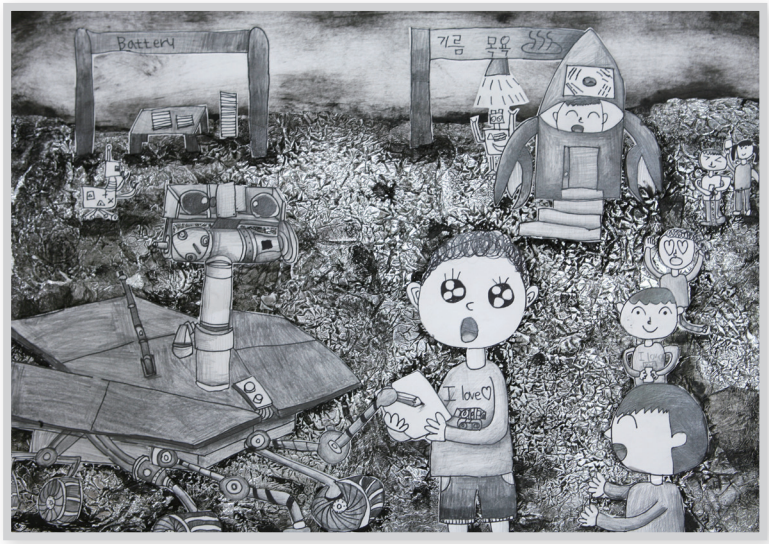
어린 만세꾼들의 눈동자에서 파란 하늘을 보았다

가좌초등학교 6학년 **박수빈**

강우의 눈물

월성초등학교 5학년 **박정빈**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경축!
오퍼튜니티 화성 탐사 졸업!

외동초등학교 4학년 **박준성**

호진이의 반성

문선초등학교 5학년 **안정현**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반대하는 우리들

수남초등학교 5학년 **이수민**

유튜브와의 우리 일상

아림초등학교 6학년 **최서영**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064 **시간의 교집합이 만든 기적** – 「시간을 파는 상점.2: 너를 위한 시간」을 읽고
반송여자중학교 3학년 김 지 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065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 – 「시간을 파는 상점.2: 너를 위한 시간」을 읽고
거제중앙중학교 1학년 송 미 승

065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난 다현이의 여정** –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고
반송여자중학교 2학년 유 은 혜

066 **그린디자인 프로젝트** –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을 읽고
거창고등학교 2학년 이 채 운

066 **체리 새우_공개글입니다** –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고
호암중학교 2학년 진 민 경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시간의 교집합이 만든 기적

반송여자중학교 3학년 **김지후**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

거제중앙중학교 1학년 **송미승**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난 다현이의 여정

반송여자중학교 2학년 **유은혜**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

거창고등학교 2학년 **이채운**

체리새우_공개글입니다

호암중학교 2학년 **진민경**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북트레일러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069 **도전** –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를 읽고
서진초등학교 6학년 윤 영 원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070 **두 얼굴의 유튜브** – 「유튜브 전쟁」을 읽고
수남초등학교 6학년 김채현, 문나현, 정서인, 추재희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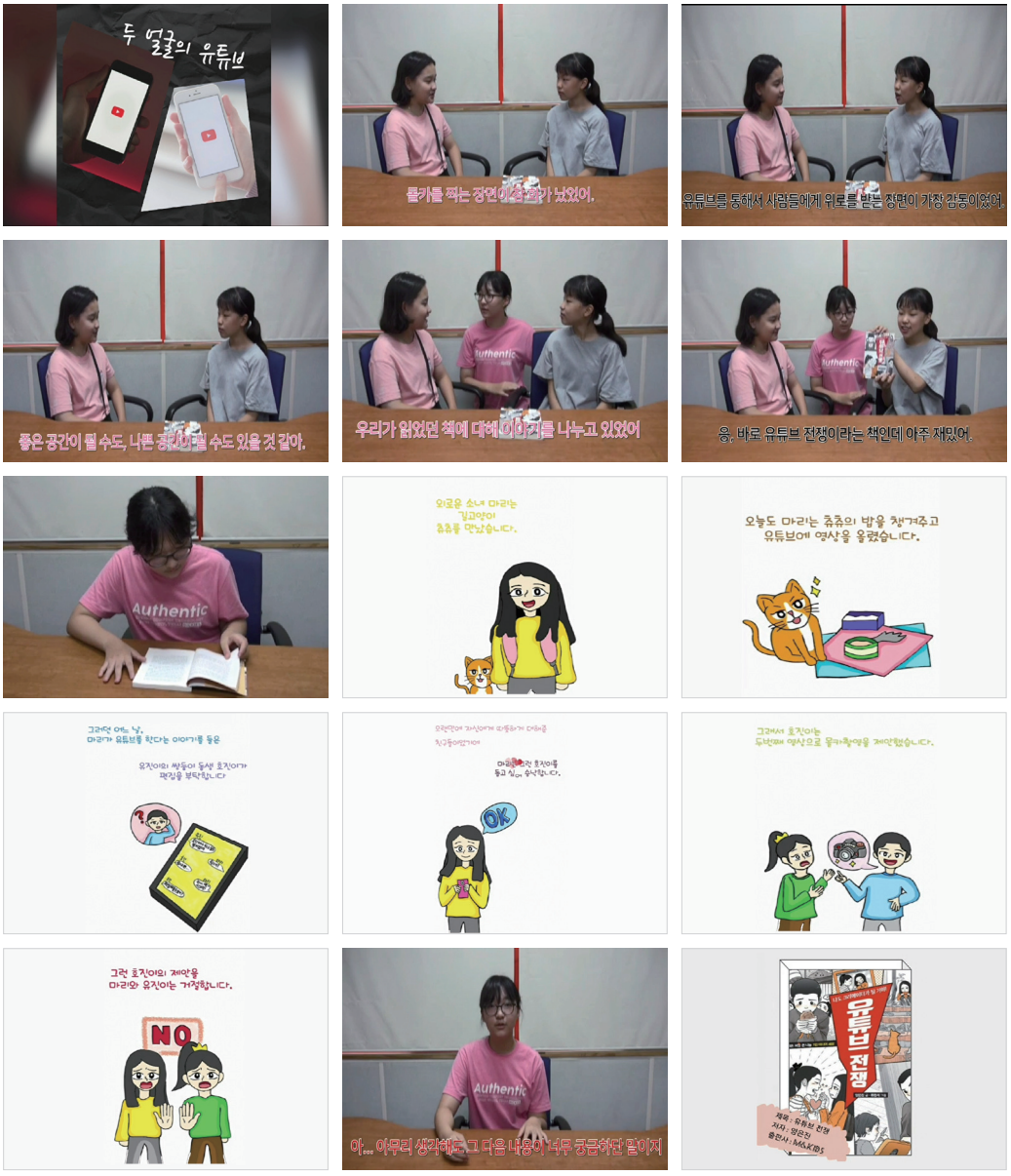
도전

서진초등학교 6학년 **윤영원**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두 얼굴의 유튜브

수남초등학교 6학년 **김채현, 문나현, 정서인, 추재희**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072 **우리에게 거고에서의 시간** – 「시간을 파는 상점2. 너를 위한 시간」을 읽고
거창고등학교 2학년 서빛나, 이연우, 이예은, 정라현, 한혜원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073 **나만의 색을 찾아봐** – 「페인트」를 읽고
고성중앙고등학교 1학년 이주이

우리에게 거고에서의 시간

거창고등학교 2학년 **서빛나, 이연우, 이예은, 정라현, 한혜원**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나만의 색을 찾아봐

고성중앙고등학교 1학년 **이주이**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1. 목적: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및 도민 독서운동 확산

2. 운영기간: 2020. 1월 ~ 12월

3. 추진일정

업무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천도서 취합, 도서선정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알림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계획수립 및 알림												
경남독서한마당 독서진흥행사(순회전시 등)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실시												
독서공모전 작품 집계 및 심사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경남독서한마당 만족도 조사 실시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발간												

4. 운영 내용

가. 독서 공모전

1) 공모 부문: 북에세이, 북디자인, 북트레일러

2) 공모 기간: 2020. 7. 1.(수) ~ 2020. 9. 29.(화)

3) 접수 현황: 16,823편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계
북에세이	7,736	1,132	128	8,996
북디자인	7,386	342		7,728
북트레일러	62	37		99
계	15,184	1,511	128	16,823

4) 심사 결과 : 470편 484명

- 종합상: 62명(거제양정초등학교 3학년 현수아 등)
- 지역상: 422명(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김리진 등)
- 지도교사상: 2명(산청초등학교, 수월중학교-학교장 추천)

경남독서한마당 운영결과

다. 수상작품 전시

- 운영 기간: 2020. 7. 1.(수) ~ 12. 27.(금)
- 운영 기관: 고성도서관 등 15개 기관 / 창원도서관 및 사이버갤러리 루시
- 운영 내용: 2018년·2019년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 순회 전시 및 온라인 전시
- 운영 실적: 7,980명

고성도서관

김해도서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밀양도서관

의령도서관

진동도서관

진양도서관

창녕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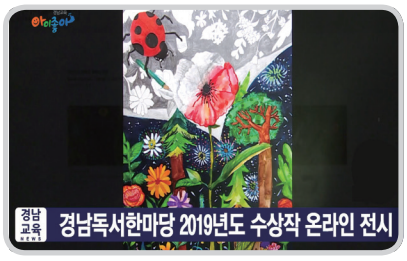
함안교육지원청

함안도서관

함양도서관

합천도서관

창원도서관



온라인 전시

다. 책 꾸러미 대출 및 나눔

- 운영 기간: 2020. 6. 16.(화) ~ 12. 12.(토)
- 운영 대상: 일반 시민 및 관계 기관
- 운영 내용: 2020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책 꾸러미 대출 및 관계 기관 나눔
- 운영 실적: 75명, 9개 기관 270권

라. 2020년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발간

- 발간일: 2020. 12. 24.(목)
- 배부 부수: 500권
- 배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경남독서한마당 수상학교 203개교 등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형식·주제
초등 1~2학년				
1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유다정	와이즈만BOOKs	그림책(환경/바다쓰레기)
2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시공주니어	동화(소통/고민/관계)
3	내일 또 싸우자	박종진	소원나무	그림책(가족/우애/갈등해결)
4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튀	봄볕	그림책(동물권/동물복지/생명존중)
5	밀어내라	이상옥	한솔수북	그림책(편견/차별/공존)
6	천하무적 용기맨	김경희	비룡소	동화(자신감/긍정의힘)
7	펑 아저씨	김미소진	계수나무	그림책(자아정체성/선택의기쁨)
초등 3~4학년				
1	강아지 시험	이묘신	해와나무	동화(반려동물)
2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천개의바람	그림책(나눔/다름/성고정관념)
3	힙합 독수리	박주혜	비룡소	동화(자아정체성/꿈/다름)
4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이현	만만한책방	그림책(탐험/우주탐사/로봇)
5	셧다운	김태호 외	현북스	동화(과학/재난/환경)
6	축구왕 이채연	유우석	창비	동화(관계/성장/스포츠)
초등 5~6학년				
1	간송 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김민규	토토북	예술(미술관/문화재/역사)
2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동화(관계/성장/상담)
3	어린 만세꾼	정명섭	사계절	동화(역사/만세운동/독립)
4	우리는 반대합니다	클라우디오 푸엔테스	초록개구리	동화(사회문제/갈등해결/민주절차)
5	유튜브 전쟁	양은진	엠앤키즈	동화(인터넷/크리에이터)
6	착한 마녀의 일기	송현섭	문학동네어린이	동시(동심/내면)
7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고소했대	공수경	대교북스주니어	동화(설화/패러디/지혜)
청소년 (중학생)				
1	동물 농장	조지 오웰		문학(고전/우화/권력)
2	저 청소일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문학(진로/다름)
3	질문하는 영화들	라제기	북트리거	비문학(예술/인문)
4	체리 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문학(자아/친구관계)
5	최저 임금 쫌 아는 10대	하승우	풀빛	비문학(사회/노동)
청소년 (고등학생)				
1	시간을 파는 상점. 2 : 너를 위한 시간	김선영	자음과모음	문학(성장/공동체)
2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비문학(역사/인문)
3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시공사	비문학(사회/세계문제)
4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한겨레출판	비문학(환경/과학기술)
5	페인트	이희영	창비	문학(자아/부모자녀관계)
일반				
1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문학(고전/개인/언론)
2	감정 폭력	베르너 바르텐스	걷는나무	비문학(심리/비언어적 폭력)
3	경찰관속으로	원도	이후진프레스	문학(에세이/사회/직업관)
4	도시의 얼굴들	허정도	지앤유	비문학(인문/인물/지역사)
5	로마법 수업	한동일	문학동네	비문학(로마법/인문/철학)
6	설이	심윤경	한겨레출판	문학(성장/사랑의의미)
7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후	메이븐	문학(에세이/삶의 관조)
8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환	북스피어	문학(인물/휴머니즘)
9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	김달님	어떤책	문학(에세이/가족)
10	퇴근길 클래식 수업	나웅준	페이스메이커	비문학(예술/음악)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5년(제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꿩	이오덕	효리원
2	엄마는 거짓말쟁이	김리리	다림
3	심청가	이현순	초방책방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문제아	박기범	창비
2	작은 씨앗이 꾸는 꿈, 숲	이성아	푸른나무
3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직업이야기 51	김한준	을파소
청소년 (중학생)			
1	지붕 낮은 집	임정진	푸른숲
2	나비에 사로잡히다	샤먼 앱트 러셀	북폴리오
3	마사이전사 레마솔라이	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황소자리
청소년 (고등학생)			
1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조항범	예담
3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일 반			
1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	미쳐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3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6년(제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수상한 선물가게	류가미	국민서관
2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3	누리야 누리야	양귀자	문공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의 바이올린	수지 모건스턴	주니어김영사
2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크레용하우스
3	어린이를 위한 선물	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청소년 (중학생)			
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민음사
2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아이들
3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천국에서의 하루	권대응	홍익출판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일 반			
1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2	행복에 이르는 길	폴턴 J. 신	해누리
3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청목
4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김영사
5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야마자키 후미오	상상미디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7년(제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똥장군	김정희	한림
2	도깨비 아부지	이상배	국민서관
3	일기도서관	박효미	사계절
4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장주식	문학동네
5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이오덕	한길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 좀 내버려둬	박현진	천둥거인
2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북뱅크
3	빌리 엘리어트	벨민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4	샬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시공주니어
5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청소년 (중학생)			
1	기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낭기열라
2	곰보빵	이철환	꽃삽
3	주머니속의 고래	이금이	푸른책들
청소년 (고등학생)			
1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푸른숲
2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	청림
일 반			
1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손혜주 외	사이언스북스
2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3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게 사랑하라	정연	고니
4	천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5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위즈덤하우스
6	행복한 사람 타샤튜더	타샤 튜더	윌북
7	호미	박완서	열림원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8년(제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황소와 도깨비	이상	다림
2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씽크빅
3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이태수	우리교육
4	바나나 필통속의 꽁쥐	이미애	행복한아이들
5	꼴찌가 받은 상	김용인	영림카디널
6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창비
7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윤문영	계수나무
8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아이세움
9	금순아, 노올자	이상권	창비
10	아름다운 꼴찌	이철환	주니어랜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풀코스 짚문화여행	인병선	현암사
2	엄마의 마지막 선물	문선이	파랑새
3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4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대교출판
5	우리 다시 만날 때	송재찬	계수나무
6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샘터사
7	하늘을 나는 교실	에리히 케스트너	시공사
8	명혜	김소연	창비
9	가짜 한의사 외삼촌	최미선	문원
10	다산의 아버님께	안소영	보림
청소년 (중학생)			
1	나무의 죽음	차윤정	웅진지식하우스
2	하늘이 낸 성인을 꿈꾸던 공자 vs 저절로 참 스승이 된 노자	권순이	숨비소리
3	펄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4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하페 케르켈링	은행나무
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청소년 (고등학생)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창비
3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4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일 반			
1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	비형랑의 낮과 밤	김인배	문학세계
3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푸른숲
4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5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6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7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청년사
8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	김영사
9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이혜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9년(제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친구 도서관	김하늬	한겨레아이들
2	도둑님 발자국	황선미	배틀북
3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4	선생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강무홍	사계절
5	책 읽는 허수아비	마크 킴볼 몰튼	예꿈
6	은비네 시골일기	고정욱	진선북스
7	너 나 우리	선안나	샘터사
8	멋진 여우씨	로알드 달	논장
9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시공주니어
10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어린이
2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보리
3	책읽는 도깨비	이상배	처음주니어
4	나는 진짜 나일까	최유정	푸른책들
5	귀신 고래	김일광	내인생의책
6	우리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7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현길언	계수나무
8	마르코 폴로의 모험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9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주니어중앙
10	준비됐지?	김옥	창비
청소년 (중학생)			
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2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오바마 이야기	헤더 레어 와그너	명진출판사
3	스프링벅	배유안	창비
4	나의 권리를 말한다	전대원	뜨인돌
5	꽃피는 고래	김형경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이 일기는 읽지 마세요, 선생님	마가렛 피터슨 해딕스	우리교육
2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문예출판사
3	젊음의 탄생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4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5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외	시공사
일 반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살림
3	듀이: 세상을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
4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6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7	내려가는 연습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8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구중서	책만드는집
9	습지와 인간	김훤주	산지니
10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이충렬	김영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0년(제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대머리 사막	박경진	미세기
2	이르기 대장 1학년 나최고	조성자	아이앤북
3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현태	아이앤북
4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5	큰 고추 작은 고추	하이타니	양철북
6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렌사빈	문학동네
7	알몸으로 학교 간 날	타이마르크 르탄	아름다운 사람들
8	베컴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교학사
9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송윤섭	주니어김영사
10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이금이	보물창고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숨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문학동네
2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우리교육
3	어진이의 농장 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4	지구를 지키는 가족	김바다	한림출판사
5	멋지다 우리역사	강명관	주니어김영사
6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7	맑은 날엔 도서관에 가자	미도리카와 세이지	책과콩나무
8	책 읽어주는 바둑이	이상배	처음주니어
9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10	똥 치우는 아이	김문주	예림당
청소년 (중학생)			
1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브라이언 밀러	서해문집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3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러셀 프리드먼	비룡소
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미래M&B
5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	살아 있음이 행복해지는 희망 편지	김선규 외	랜덤하우스코리아
3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푸른숲
4	시골 똥 서울 똥	안철환	들녘
5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지오	파랑새
일 반			
1	재미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	공무도하	김훈	문학동네
3	햇살 한 줌 향기 한 줌	정목일	문학수첩
4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웅진지식하우스
5	풀밭 위의 식사	전경린	문학동네
6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문이당
7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수이치	21세기북스
8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책방
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신의진	걷는나무
1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1년(제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내 친구 조이	표지율	대교출판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뜨인돌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4	책읽어주는 로봇	이영득	보림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책속물고기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파란자전거
7	강치야 독도강치아	주강현	한겨레아이들
8	쫀드기쌤 찐드기 쌤	최종득	문학동네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동아사이언스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시공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당산할매와 나	윤구병	휴먼어린이
2	어느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찰리북
3	사계	마르코 심사	우리교육
4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
5	봉주르 뚜르	한윤섭	문학동네
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상수리
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파란자전거
8	나의 어설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책그릇
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10	엄마의 슬픈날	시린 호마이어	문학동네
청소년 (중학생)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	통세계사	김상훈	다산북스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살림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비룡소
5	길은 학교다	이보라	한겨레출판
청소년 (고등학생)			
1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2	가족 표류기	M.H. 헐롱	양철북
3	맹자	장현근	한길사
4	가족입니까	김해원	바람의아이들
5	소피의 세계	요스타인 가아더	현암사
일 반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문학동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현대문학
3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호
4	크로스	정재승 & 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6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웅진지식하우스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이윤기	민음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이소라	그리고책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2년(제8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한울림어린이
2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3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4	책 씻는 날	이영서	학고재
5	(이이화역사할아버지가들려주는)발효이야기	이이화	파랑새
6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시공주니어
7	빨강연필	신수현	비룡소
8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산하
9	마틸드는 쓰레기 박사	소피세레	크레용하우스
10	내가 원래 뭐였는지알아?	정유소영	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기묘한 DNA 도서관	하바 아라시	북스마니아
2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바람의아이들
3	봉구뽕구 봉규야	김문주	예림당
4	소나기 밥 공주	이은정	창비
5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문학동네
6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다림
7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람이야기	박영대	현암사
9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혜숙	책과함께어린이
10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청소년 (중학생)			
1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명진출판사
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3	검은 개들의 왕	마윤제	문학동네
4	핸드폰이 사라졌다	웬디 하머	개암나무
5	방주로 오세요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에릭 슐로서	모멘토
2	괜찮아, 열일곱 살	이나미	이랑
3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5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고재
일 반			
1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회일	다산라이프
2	안철수의 서재	이채윤	푸른영토
3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4	다 그림이다	손철주,이주은	이봄
5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다	강풀 외	한겨레출판사
6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7	흑산	김훈	학고재
8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스님	쌤앤파커스
10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3년(제9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햇살과 나무꾼	비룡소
2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비룡소
3	맛있는 짜장면의 역사	박남정	산하
4	까만 아기양	엘리자베스 쇼	푸른그림책
5	엄마 사용법	김성진	창비
6	옆집 아이는 로봇	한주형	책과콩나무
7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 이야기	한영식	아이세움
8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9	착한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로연
10	천개의 바람 천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천개의바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굳게 다짐합니다	조경숙	국민서관
2	귓속말 금지구역	김선희	살림어린이
3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정창권	사계절
4	날씨 전쟁	토니 브래드먼	사파리
5	섬마을 스캔들	김연진	살림어린이
6	속담 속에 숨은 수학(단위와 측정)	송은영	봄나무
7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9	왜 우리는 친구일까?	박성철	서교
10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석혜원	풀빛
청소년 (중학생)			
1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 외	꿈결
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3	열혈 수탉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
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5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고정욱	애플북스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웅진지식하우스
3	박철범의 공부특강	박철범	북스토리
4	수상한 화가들	박석근	사계절
5	살아있는 귀신	설 흔	창비
일 반			
1	꾸뻬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 미래
2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3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4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다른
5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리더스북
6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9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10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4년(제10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키다리
2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 맥키삭	고래이야기
3	내 빤스	박종채	키다리
4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키다리
5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욱재	노란돼지
6	멋대로 맘대로 윌로	데니즈 브레넌 넬슨 외	찰리북
7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문학동네
8	발레 하는 할아버지	신원미	머스트비
9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실천문학사
10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린다 그리바	아름다운사람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	게임 파티	최은영	시공주니어
3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살림어린이
4	나는 바람이다 1~2	김남중	비룡소
5	나는 투명 인간이다	박성철	아이앤북
6	말이 통하는 아이	노여심	주니어김영사
7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핫핑크돌핀스	두레아이들
8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파란자전거
9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말려줘	태미라	스콜라
10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오진희	웃는돌고래
청소년 (중학생)			
1	남쪽 섬 티오	이케자와 나쓰키	미래인
2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박지혜	뜨인돌
3	십대를 위한 직업 백과	이랑	꿈결
4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5	휴대폰 전쟁	로이스 페터슨	푸른숲주니어
청소년 (고등학생)			
1	벙커	추정경	놀
2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3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
4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5	지구가 뿔났다	남종영	꿈결
일 반			
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낮은산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사
6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한겨레출판사
7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난다
8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박영신	정신세계사
9	인생수업	법륜	휴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5년(제1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5대 가족	고은시, 이억배그림	바우솔
2	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	이하은	파란자전거
3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강정연	라임
4	목기린씨 타세요	이은정	창비
5	슈퍼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6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펫, 게리 루빈스타인	두레아이들
7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두레아이들
9	플라스틱 섬	이명애	SANG
10	햄스터 마스크	우쓰기 미호	책읽는곰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갈색아침	프랑크 파블로프	휴먼어린이
2	빵 터지는 빵집	원유순	크레용하우스
3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악당의 무게	이 현	휴먼어린이
5	앵그리 맨	그로 달레	내인생의책
6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임지윤	창비
7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8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사계절
9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책과콩나무
10	초등생을 위한 환경 특강	윤해윤	나무처럼
청소년 (중학생)			
1	김치도 꽁치도 아닌 정치	임정은	다른
2	내 이름은 욤비	욤비 토나, 박진숙	이후
3	모두 깜언	김중미	창비
4	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	양철북
5	우리 친구 맞아?	이남석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	델 문도	최상희	사계절
3	수상한 북클럽	박현희	문학동네
4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5	어쩐지 근사한 나를 발견하는 51가지 방법	공혜진	동양북스
일 반			
1	1그램의 용기	한비야	푸른숲
2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3	단속사회	엄기호	창비
4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윤신영	MID
5	소년이 온다	한 강	창비
6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아트
7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8	자스민 어디로 가니	김병종	열림원
9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
10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6년(제1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거북이북스
2	나부댕이!	제니 오필	봄나무
3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허가람	웅진주니어
4	마음을 배달해 드립니다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	멧돼지가 쿵쿵 호박이 둥둥	김애란	창비
6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고래이야기
7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8	소원을 말해 봐	김소연	비룡소
9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10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2등을 위하여	실비아 태케마	아름다운사람들
2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3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어린이
4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	머스트비
5	아빠, 소 되다	핼리 혜성	한림출판사
6	얘들아, 왜 지구가 아픈지 아니?	안드레아스 슐룸베르거	토토북
7	엄마는 학교 매니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9	쥐포 스타일	김지영	비룡소
10	화학이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실바나 푸시토	찰리북
청소년 (중학생)			
1	꼰대 아빠와 등골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	김경선	자음과모음
2	소년이여, 요리하라	금정연 외	우리학교
3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4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5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청소년 (고등학생)			
1	꽃 달고 살아남기	최영희	창비
2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3	창밖의 아이들	이선주	문학동네
4	하리하라의 음식과학	이은희	살림Friend
5	홀딩 파이브 도와줘	김성빈	마리북스
일 반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21세기북스
2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3	근시 사회	폴 로버츠	민음사
4	내 서재 속 고전	서경식	나무연필
5	담론	신영복	돌베개
6	사랑하는 안드레아	룽잉타이, 안드레아	양철북
7	서민적 글쓰기	서 민	생각정원
8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9	철학의 힘	김형철	위즈덤하우스
10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7년(제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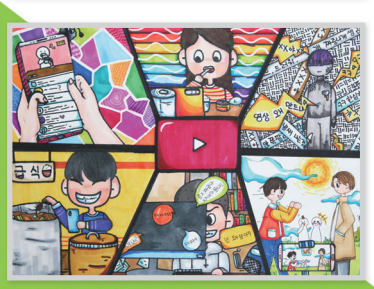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2	거짓말	카트린 그리브	씨드북
3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크리바	한울림스페셜
4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5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6	아빠나무	김미영	고래뱃속
7	커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찰리북
8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9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볕
10	혼자가 아닌 날	구오징	미디어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503호 열차	허혜란	샘터
2	대단한 단추들	이정록	한겨레아이들
3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4	바람의 맛	김유경	이야기꽃
5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비룡소
6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7	엘 데포	시시 벨	밝은미래
8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9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은옥	비룡소
10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남찬숙	미세기
청소년 (중학생)			
1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안야 슈튀르처	푸른숲주니어
2	싸이퍼	탁경은	사계절
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최종욱	창비
4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김흥식	서해문집
5	이런 법이 어딨어?	니콜라 린트너	탐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린잡	박경화	양철북
2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3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사계절
4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5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예담
일 반			
1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2	거짓말이다	김탁환	북스피어
3	공부할 권리	정여울	민음사
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알키
5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반비
6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8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양철북
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10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8년(제1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2	그 소문 들었어?	하야시 기린	천개의바람
3	두 배로 카메라	성현정	비룡소
4	마지막 뉴스	서정홍	웃는돌고래
5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지양어린이
6	생각이 켜진 집	리샤르 마르니에	책과콩나무
7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문학동네
8	엉뚱한 수리점	차재혁	노란상상
9	엉터리 집배원	장세현	어린이작가정신
10	오, 멋진데!	마리 도를레앙	이마주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만 잘하는 게 없어	이승민	풀빛
2	나무도장	권윤덕	평화를 품은 책
3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씨드북
4	넘어진 교실	후쿠다 다카히로	개암나무
5	다 잘 될 거야	키어스텐 보이에	책빛
6	멋진 하루	안신애	고래뱃속
7	바닷가 탄광 마을	죠앤 슈워츠	국민서관
8	붉은 실	이나영	시공주니어
9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디디에 데냉크스	봄나무
10	플로팅 아일랜드	김려령	비룡소
청소년 (중학생)			
1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오찬호	나무를심는사람들
2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푸른숲주니어
3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문지현	뜨인돌
4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조성배	반니
5	운동장 편지	복효근	창비교육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북트리거
2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3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4	스타벅스에 간 소녀	소피 킨셀라	라임
5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하지현	창비
일 반			
1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휴머니스트
2	기술 중독 사회	켄타로 토야마	유아이북스
3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4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5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돌베개
6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7	소비의 역사	설혜심	휴머니스트
8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9	예술, 역사를 만들다	전원경	시공아트
10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21세기북스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2019년(제1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나는 소심해요	엘로리 페로탱	이마주
2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천개의바람
3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여유당
4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비룡소
5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나는별
6	터널	헤게 시리	책빛
7	행복한 줄무늬 선물	야스민 셰퍼	봄볕
8	곰팡이 수지	레오노라 라이틀	스콜라
9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10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비룡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강민경	현암주니어
2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논장
3	표절 교실	김해우	크레용하우스
4	까칠한 아이	남찬숙	대교북스주니어
5	나이 도둑	정해왕	해와나무
6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한울림어린이
7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풀빛미디어
8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찰리북
9	리얼 마래	황지영	문학과지성사
10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	다나카와 슌타로	천개의바람
청소년 (중학생)			
1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	산하
2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푸른숲주니어
3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서의동	너머학교
4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둘베개
5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펀	뜨인돌
청소년 (고등학생)			
1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	상추쌈
2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자음과모음
3	왜 언론이 문제일까?	박영흠	반니
4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5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특강	최원형	철수와영희
일반			
1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2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천년의상상
3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4	마녀체력	이영미	남해의봄날
5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현대문학
6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7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	푸른숲
8	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	최종득	양철북
9	유머니즘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10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CHANGWON PUBLIC LIBRARY